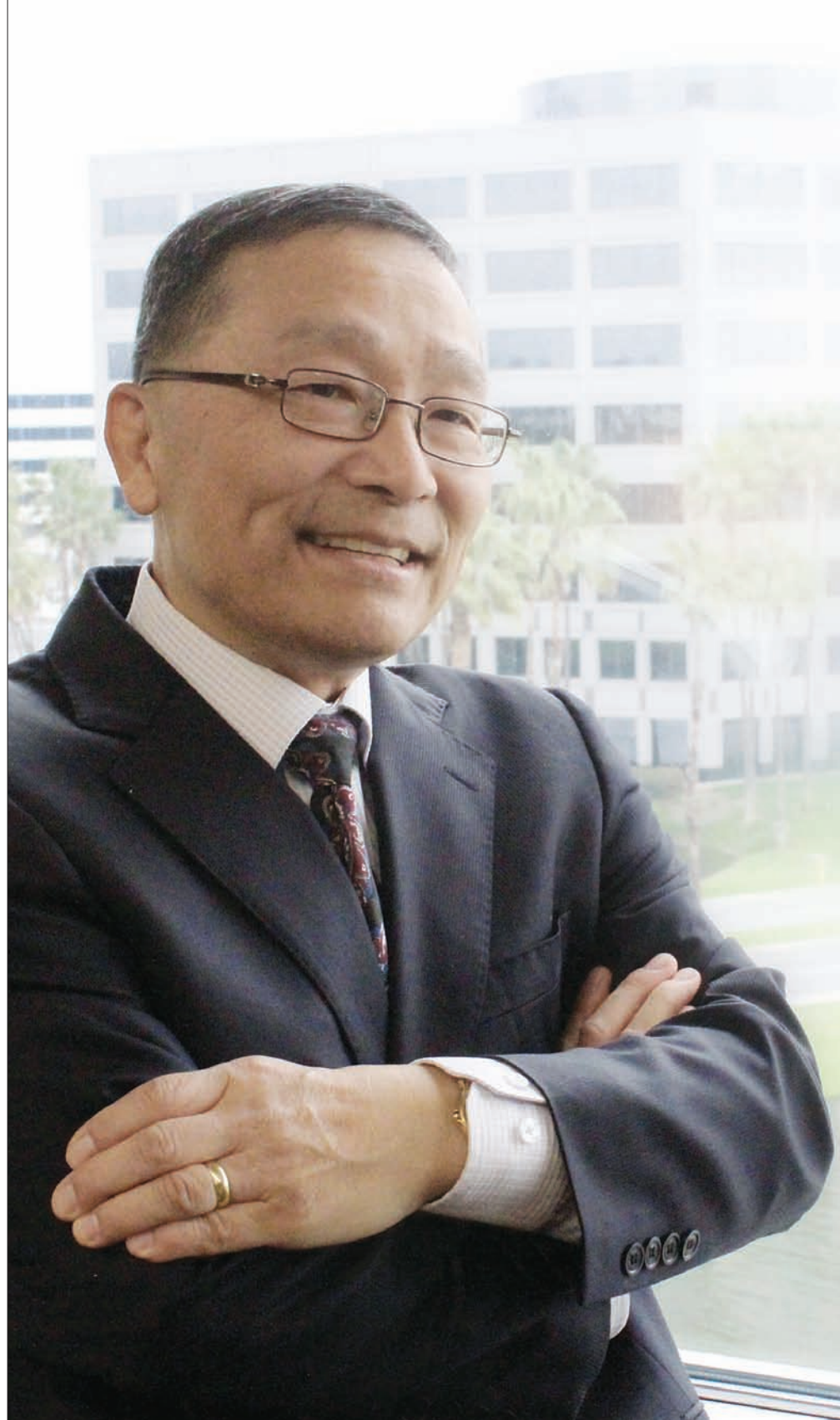


난 누군가의 오픈북이고 싶다

〈오늘도 희망이다 3〉 게이트웨이신학교 양건환 교수



Information-Application=Information

Information+Application=Transformation

누가 교수 아니랄까 봐 바로 공식이 나온다. 성경해석학 수업 시간에 자주 사용하는 공식이라고 한다. 번역해 보면, '정보 빼기 적용은 정보,' '정보 더하기 적용은 변화'란 말이다. 성경 속 지식을 공부하되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그냥 지식으로 남지만, 이 지식을 잘 적용하면 인생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진리만큼이나 진리의 적용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다. 삶을 적용을 못한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냥 무거운 책 한 권일 뿐이지만,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자기 인생에 적용한 사람은 자기 인생뿐 아니라 세계 역사까지 뒤집어 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았던가?

20년 이상 신학교에서 가르쳐 온 교수에게 "당신에게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냐"고 묻는다면, 꽤나 당돌한 질문일 것이다. 양건환 교수는 1975년 이민 와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후 소명을 받았다. 현재는 게이트웨이신학교로 이름이 바뀐, 당시의 골든게이트신학교에 입학해서 목회학 석사를 거쳐 구약학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까지 모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이쯤 되면 자기 자랑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뜬금없이 과거에 2년 반 동안 심리 상담을 받은 이야기를 꺼낸다. 폴타임 교수를 하면서 교회 개척 사역에 동참했다가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담임목회까지 하게 됐다. 자신은 교수이니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고 모두 부목사들에게 주기로 했다. 다들 그의 헌신에 존경을 보였지만 정작 자신의 속은 씩어가고 있었다.

불평과 원망, 좌절, 육체적 한계에 곧 부딪혔고 "한 6개월만 심리 상담을 받아야겠다"던 것이 2년 이상 계속됐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던 '척'의 함정을 발견했다. 유식한 척, 헌신적인 척, 잘난 척, 겸손한 척 하느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했다. 겉으로 경건하고 헌신적인 신학자요 교수요 목사였지만 과거의 상처 속에서 허덕이며 누군가로부터의 인정과 존중에 갈급했다.

"거짓으로 과장된 모습이 진짜 제 모습인 줄 저도 속았던 거죠. 상담을 통해 자아경멸, 자기혐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던 제 모습을 봤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며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두려워하며 살아온 그의 인생 이야기에 동일한 아픔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특히 이민자라면, 특히 1.5세라면 더욱 고개를 끄덕일 터.

그런데 그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한계를 시인한 그 시점부터 '삶에 적용'되기 시작하더니 그를 일으켜 세웠다. 문제를 발견한 것은 상담 덕분이지만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었다. 사람의 존경이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서자 '척' 할 필요가 없고 자유함이 느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순간마다 신뢰되고 행동으로 옮겨집이 반복되면서 진리가 체험되고, 과거의 상처나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중세 수도사들이 말씀을 읽던 방법을 제안했다. 먼저 무조건 읽는다. 진리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진리와 씨름이 시작된다. 양 교수는 이를 "말씀의 진리와 내가 처한 현실적 안타까움 간의 정면 충돌"이라고 표현했다. 마지막은 그 씨름의 결과물을 놓고 기도하며 내 자신을 쉬게 하는 것이다. "나는 못하니 주님께 맡긴다"는 항복 선언이다.

"요즘 설교 잘하는 목사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설교 잘하는 목사보다 말씀을 살아내는 목사를 더 존중하며 따릅니다. 리더는 진리와 현실의 만남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꺼이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아픈 기억을 꺼내어 놓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에겐 사명이기도 하다. "신앙은 차세대에 자동적으로 전수되지 않아요. 각 세대가 스스로 진리를 쫓는 자가 되길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제 인생 이야기가 신앙의 후배들을 돕는 오픈북이 되길 바랍니다." 글·사진 김준형 기자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컬러복사/컬러프린트/컬러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및/저산.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2017년 세계기도일

‘차별 없는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

세계기도일 예배는 전 세계 180여개국에서 한날 한시에 같은 기도제목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올해 기도국가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여성연합회에서 작성한 예배문으로 3월 첫주 전 세계가 함께 드리는 연합예배를 통해 필리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땅에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의 나팔이 울리기를 기도합니다. 필리핀을 직접 밟아 보지 못하지만 예배와 기도로 올 한해 필리핀을 마음에 품고 선교하게 됩니다.

남가주지부 모임

- 일시 : 3월 4일(첫 주 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 : 동양선교교회
- 문의 : Tel. 714)398-7471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임원들 ©연합회 제공

세계기도일 올해는 필리핀 위해 기도

남가주 한인들은 3월 4일 동양선교교회에서 기도회

전 세계 교회 여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세계기도일이 올해도 3월 첫째 금요일에 180여 나라에서 열린다. 130년을 맞이한 세계기도일은 1887년 다윈 제임스 여사(미국장로교 국내선교부 의장)가 당시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이민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을 정한 데서 유래돼 전 세계로 확산됐다.

이날은 한 나라의 여성들이 작성한 기도문을 전 세계 여성들이 함께 읽고 기도하며 헌금을 모아 그 나라로 보내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필리핀의 여성들이 “차별 없는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 아래 기도문을 작성했다.

한국의 경우는 1922년 만국부

인회가 중심이 되어 세계기도일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세계기도일을 지키고 있다. 1930년에 “예수님만 바라보며,” 1963년에 “이기는 힘,” 1997년에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라는 주제로 기도문도 세 번이나 작성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1979년부터 세계기도일을 지키고 있으며 현재 전 미주 400여 교회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세계기도일 예배를 드리는 금요일의 경우, 성도들이 오전에는 직장, 오후에는 각자의 교회에서 드리는 금요일예배로 인해 연합 행사에 참여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해, 매년 3월 첫째 토요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올해는 3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동양선교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남가주 지부 회장 최순자 사모는 “전 세계 180개국 여성들이 한날 한시에 같은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초교파적 여성 기도 운동에 여러분도 참여해 달라”면서 “연합 예배를 통해 필리핀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땅에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의 나팔이 울리기를 기도하자. 또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평한 환경을 이루어 가기를 기도하자”고 말했다.

문의) 714-398-7471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

한 달에 두 번 어머니들 모여 함께 기도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에서 매달 두 번 어머니들의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남가주 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한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남성수 담임목사)에서는 매달 첫째, 셋째 목요일 오전 10시에 어머니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자녀를 위한 기도에는 회복이 있고 미래, 사랑, 만남이 있

다고 믿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이다.

지난 2월 2일과 16일에는 임상병리학 박사이며 뇌정신질환과 정신건강 교육자, ABC(A Beautiful Communication) 상담교육원 대표

인 여명미 박사가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대화의 기술,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는 대화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함께 기도했다.

오는 3월 2일에는 심현석 목사가 “세상의 시험이 몰려올 때”, 3월 16일에는 강요한 목사가 “회복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4월 6일에는 이승환 목사가 “회복”, 4월 20일에는 심현석 목사가 “회개할 때 주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할 예정이다.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기 원하는 어머니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회 주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문의) 심현석 목사 714-337-6669

권철훈 기자



카니 정 조소장과 실비아 권 카운슬링 프로젝트 디렉터 © 상담소 제공

무료상담 필요한 한인 위해 달린다

ROCK 기금 이어 ROCK 프로젝트 발족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한인들을 위한 무료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한인가정상담소는 21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한인가정들의 회복을 위한 ‘R.O.C.K. 프로젝트(Resilience to Overcome Challenges for Korean families)’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한 후원자의 기부로 시작돼, 전년 대비 4배 이상 많은 무료상담 서비스를 가능케 한 ‘R.O.C.K 카운슬링 기금’으로부터 이름을 따 이 프로젝트도 ‘R.O.C.K. 프로젝트’로 정했다.

R.O.C.K. 카운슬링 기금은 2015년 익명의 한인 후원자가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체류신분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인 가정을 위해 5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 후원자는 2016년에도 5만 달러를 후원, 한인가정상담소가 무료상담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덕분에 2014년 18명이었던 무료상담 수혜자는 2015년 77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1인당 평균 8회 상담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2014년 144회였던 무료상담은 2015년 616회로 427%가 증가한 것이다.

카니 정 조소장은 “R.O.C.K. 카운슬링 기금 덕분에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었고, 지난 2년간 시행한 결과 한인사회에 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더 많은 기금을 모아 더 많은 이들에게 무료상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새롭게 R.O.C.K.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R.O.C.K. 프로젝트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 무료상담 서비스를 홍보하는 일과 더불어 더 많은 이들에게 무료상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 모금 행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프로젝트 총괄은 실비아 권 카운슬링 프로젝트 디렉터가 맡는다.

권 디렉터는 첫번째 기금모금 이벤트로 오는 3월 19일 열리는 LA 마라톤에 출전한다. 한인가정상담소 카운슬러이자 지난 20년간 마라토너로 활동해 온 권 디렉터는 2015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6대 마라톤 대회를 모두 완주, 한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월드 마라톤 메이저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바 있다. 2009년 결혼가족 치료(MFT) 석사 과정을 마치고, 2014년부터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카운슬러로 활동하고 있다.

권 디렉터는 “함께 달리면 서로 힘이 된다는 면에서 마라톤과 상담은 비슷한 점이 많다”면서 “생애 66번째 마라톤 출전인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한인들을 마음에 품고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 디렉터는 한인가정상담소와 뜻을 같이 하며 R.O.C.K. 프로젝트를 후원해준 후원자나 후원기관의 이름을 등 번호에 인쇄하여 달고 달릴 계획이다. R.O.C.K. 프로젝트 후원을 원하면 3월 10일까지 한인가정상담소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R.O.C.K. 프로젝트의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 대상은 서류미비자나 저소득층, 가정폭력·사회범죄 피해자, 무보험자 등이다. 문의) 213-389-6755

www.saseducation.weebly.com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직업학교, 어학원, 종교특례대학, 일반대학, 데이케어/프리스쿨, I-20신청, 연방인가, 온라인교육사이트
summitus37@gmail.com

back to the bible

통전 Wholeness

키아즘 구조 Chiasm

통합 Harmony

통섭 Consilience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강좌 “back to the bible”

남가주목회자를 위한 로마서 원전강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토브성경원전연구소에서 남가주목회자들을 위한 “**신 구약 원전강해**”를 시작합니다. 구약(TORAH:창,출,레,민,신)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히브리식 사고에 입각해 통전(Wholeness), 통합(Harmony), 통섭(Consilience)의 히브리식 사고(Hebrew Thinking)로 형성된 키아즘 구조(Chiasm)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 첫번째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로마서 원전강해]를 시작합니다.

- 강사 : 강신권 목사 (토브성경원전연구소 원장, 테필린 국제강사)
- 일시 : 3월 3일(금) 오후 2시~5시
- 장소 : 기독일보 (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 비용 : 교재비 20불
- 인원 : 20명



강사: 강신권 목사

▪주최: 토브성경원전 연구소 ▪주관: 기독일보 ▪문의: (213)739-0403, (213)434-1170

한인 남침례회 건강한 교회 성장 컨퍼런스

우리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미주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SBC) 내 한인교회들이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 한인교회 총회 국내선교부는 20일부터 22일까지 게이트웨이신학교에서 "건강한 교회 성장 컨퍼런스"를 열었다.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박성근 목사(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최병락 목사(세미한교회), 최성은 목사(타코마제일침례교회) 등 남침례회 한인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들과 함께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정승룡 목사(늘사랑침례교회) 등 한국에서 주목받는 침례교단 목사들이 다양한 워크숍과 집회를 진행해 큰 관심을 끌었다. 또 게이트웨이신학교의 안상희 교수, 양건환

교수도 전문 분야의 워크숍을 진행했다. 특별히 아름다운교회에서 매일 열린 저녁 집회 중 마지막 집회에는 게이트웨이신학교의 제프 오지 총장이 직접 참석해 메시지를 전하며 한인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이번 집회의 주요 강의들은 교회 성장을 위한 기술적인 면보다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들어가는 경향이 있었다. 말씀 사역의 뉴 패러다임, 건강한 목회와 말씀 사역, 설교를 위한 비유 해석 등 설교에 대한 강의가 많았고 소그룹 활성화를 통한 교회 갱신, 교회 갱신의 본질과 실제, 치유를 체험하는 건강한 교회, 섹슈얼리티를 통한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 건강 등 현장에서 적용하거



둘째 날 오전 집회에서 박성근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나 고민할 만한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는 강의도 있었다. 특히 교단의 선교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과 카자흐스탄의 주민호 선교사를 감사로 한 선교적 교회 강의도 있었다.

마지막 날에는 주강사들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됐다.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교회 개척이나 설교, 교육, 교회 운영 등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에 대해 주강사들에게 직접 묻고 조언을 얻는 시간이었다.

컨퍼런스를 준비한 반기열 목사(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장)

는 "이 컨퍼런스가 건강한 교회 성장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 최고의 강사들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 하나 하나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쁨 부으심으로, 그 영향력이 교회에 넘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출판 감사 음악회에서 미주평안교회 찬양대가 연주하고 있다.

<우리 함께 걸어 행복한 그 길> 출판 감사 음악회

송정명 목사 은퇴 후 사역 포함해 증보

송정명 원로목사(미주평안교회)의 저서 <우리 함께 걸어 행복한 그 길> 증보판 발간을 기념하는 출판 감사 음악회가 18일 오후 5시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렸다.

송 목사는 은퇴와 함께 2013년 이 책을 처음 발간했으며 이번 증보판에는 은퇴 후의 사역이 담겨 있다. 그는 1989년 미주평안교회에 3대 담임목사로 부임해 24년을 섬기는 등 40여년 간 목회했다. 은퇴 후에는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그날까지 선교연합 공동대표 등으로 현재까

지 섬기고 있으며 미주복음방송 사장도 역임하는 등 더욱 왕성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출판 감사 음악회에서는 노형건 선교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임승진 목사(미주평안교회 담임)가 기도하고 남중성 교수(월드미션대학교)가 독후감을 발표했다. 최문환 장로(미주성서화운동본부 이사장)와 박희민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국제총재)가 각각 인사와 축사를 전했다.

곧 이어 오페라 캘리포니아 소년

소년합창단, 정창균 목사, 글로벌메시아찬양선교단, 미주평안교회 찬양대, 소프라노 신선미, LAKMA 합창단 등이 아름다운 연주를 선보였다. 마지막 곡은 윤임상 교수(월드미션대학교)의 지휘로 모든 출연진이 "축복"을 합창함으로 장식했다.

이어 김창식 목사(성광교회 회장)가 축도함으로 1부 순서를 마친 후 2부 순서에서는 홍순도 목사(남가주 원로목사회 회장)가 식사 기도하고 천교의 시간이 있었다.

김준형 기자

진실하고 겸손한 여성목사회 되길

김헬렌 남가주여성목사회회장 취임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장에 김헬렌 목사가 취임했다. 19일 오후 5시 한미장로교회에서 열린 회장단 취임식에서 김 목사는 제7대 회장에 취임하며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여성목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장에 취임한 노혜숙 권사는 "남가주 교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교계로부터 신뢰받는 여성목사회가 되길 기도한다"고 했다.

회장단 이취임을 기념하며 LA한인회의 로라 전 회장,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김재율 공동회장이 축사를 서면으로 보내왔다.

취임식에서는 이운영 목사(한미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남가주한인목사회 김영구 회장, 엄규서·백지영 증경회장, 우리복음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 등이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다. 축도는 남가주원로목사회 이태환 증경회장이 했다.

김준형 기자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포츠형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6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남게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관까지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아이비 유학

3·7·21 재능캠프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Shelby Kwon
Director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LEE'S MORTUARY

**당신의 마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저가격 보장제

- 유족과 같은 마음으로 리스장의사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장례는 현실입니다
-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 최소 10% 이상 더 저렴한 비용을 약속드립니다

무료출장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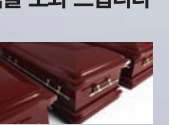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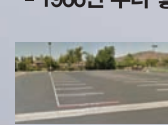
- 고인의 교회, 자택에서 장례식을 치루실 수 있도록 출장서비스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타 장의사의 채플비용을 절약하시면서 고인과 지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미전국 지사망

- 엘레이, 오렌지카운티, 시카고, 아틀란타 지역 지사망을 통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랜경험의 등직함

- 1966년 부터 쌓아온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완벽한 장례식을 도와 드립니다



1000대 동시주차 규모의 넓고 편리한 파킹 / 아름다운 채플 / 깔끔하고 안락한 분위기



LEE'S MORTUARY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스장의사 회장 이시용 장로

직원 및 협력업체 모집

직원모집 장례지도사, 장례보험설계사, 장례영업사원
협력업체모집 비석, 관, 묘지, 꽃, 사진, 주얼리, 각종인쇄

시카고 스미스 코코란
185 EAST NORTHWEST HIGHWAY,
PALATINE, IL 60067
아틀란타 리창의사
4067 INDUSTRIAL PARK DRIVE
NORCROSS, GA 30071

24시간 한국어 문의
(714) 469-1040
Fax (714) 333-4916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Since 1966
리스장의사
Lee's Mortuary FD1164



구원에 이르는 믿음

히브리서 10:32-39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 히10:32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33 혹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34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아라 35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36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7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직역하면 그 자리에 그냥 두면 곧 멸망하겠기에 구원을 목적으로 멸망할 자리에서 옮겨놓았다는 말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죄악 세상에 불의와 죄악에 휩쓸리며 죄악을 먹고 마시는 생활을 계속했다면 여러분들은 곧 멸망할 입장뿐이라서 교회를 통하여 하늘나라 갈 자격을 갖추라고 불러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일단 교회에 왔다는 것은 소망적인 비전을 허락받았다는 입장에서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거듭나라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3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인생의 껍질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옛사람의 모든 성품적인 것까지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 자신의 신앙 성장이 더디게 되고 주변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염려를 끼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계약인 구원의 역사,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그 날부터 믿음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깨달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된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헛된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깨달음의 기준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알아 자신의 형편이 이로 인하여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의 깨달음이라면 그 인생이 그 시간부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만가지 기대만 거는 신앙으로 바뀌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식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

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절반 이상이 이런 미신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봉사라는 것은 뒷전이고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주고 반겨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누가복음 17:11 이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잇길을 지나오실 때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외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가는 동안 그들의 몸을 다 고쳐주신다는 약속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나병환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천형(天刑) 환자들이었습니다. 혹 이들이 병이 나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능력으로 나병을 고침 받았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람들에게 보이고 다니도록 모세의 율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던 도중 그들의 몸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열 명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으나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육신의 나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찌든 영혼까지 하늘의 영생복락의 후사로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이기적이고 염치도 예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을 살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철이 들면 그 부모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부모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라면 전적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의식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사명의식으로 인내하며 희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단계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회개해서 성령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인 예수님이 사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놓고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내 인생의 옛 습관을 좇아 못된 생활을 계속하니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 역할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둘째로는 수고한 사람의 몫으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고 기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교하겠다고 하지만 어떠한 부담이 자신에게 지워지면 묘한 구실과 핑계를 대며 기피하려는 상황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진짜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적 철부지 신앙에선 결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익하게 하고 자신도 유익하게 하지는 신앙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한 희생은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자기 입장이 아닌 주님만을 위하여 그 분의 모든 입장에서 서서 그 분으로 인한 모든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확증되어질 수 있어야 우리 믿음은 비로소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고 혹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 세상의 육신으로 원하는 조건을 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고 따라서 영원하고 신령한 내세 소망, 하늘의 확실한 소망을 믿는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환란과 핍박, 고통,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모든 기업과 재산을 빼앗기고 명예와 지위를 빼앗기더라도 하늘의 영원한 조건이 더

나은 조건으로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기를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의탁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함으로 믿음의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말씀은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의 믿음이 자기백성으로 인정되어야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구원의 보장을 기대하라는 말입니다.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신앙이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을 앞세워 예수님을 피하여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숙해져 가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담대하게 인내함으로 그리스도 왕국 확장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적을 쌓음으로 영광스러운 결실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AM1310 기쁜소망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목회자를 위한 Audio Book Club Audio Drama Bible 활용 세미나

- *주관 : 지앤엠(Grace & Mercy) 글로벌문화재단
- *협력 : LA 동부교역자 협의회, SU North America(미주 성서유니온)
- *강사 : 김도현 교수, 박동희 권사

- *대상 : 목회자 및 신학생
- *일시 : 3월 2일(목), 10:00am~2:30pm
- *일정 : 1부(10:00~12:00pm) : Audio Drama Bible (김도현 교수)
1) Public Reading of Scripture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2) Audio Drama Bible (소개와 활용)
3) 12:00~1:00pm (점심식사와 교제)
2부(1:00~2:30pm) : Just Show Up (박동희 선교사)
1) Just Show Up (소개 및 활용)
2) 목상과 나눔과 오디오 북 활용의 실제

- *장소 : 선한목자교회 (고태형 담임목사)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강사: 김도현 교수

- 콜로라도 크리스찬 대학 신약학 교수
- Boulder Korean Church 담임 목사
- Kosta USA 공동 대표



강사: 박동희 권사

- JSU Korea Ambassador
- SU Korea 협력 선교사
- 미주 성서 유니온 이사(SUNA)

- *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오디오 북 도서와 점심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세미나 준비를 위해서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세미나 신청안내: 이메일 : info@sunhanchurch.com T. (909) 591-6500 (선한목자교회)



선한목자교회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GBC 미주복음방송 사장 모집 공고

지난 25년간 오직 예수님만 전하며, 주 7일 24시간 복음이 선포되는 미주 최대의 한인 기독교 라디오 방송사 GBC 미주복음방송 사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많은 분들의 응모를 바랍니다.

1. **공모직위 및 인원**: 사장 / 1명
2. **임기**: 선임일로부터 3년
3. **주요 직무수행 조건**
 -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와의 결의를 집행하며, 회사의 경영 전반을 통할 할 수 있는 분
 - 방송 및 미디어 사업에 전문성을 갖추고 급변하는 선교환경에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유지 할 수 있는 분
4. **지원자격**
 - 크리스찬으로 도덕과 신앙을 통한 공적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 분
 - 최고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리더십, 전문성, 위기관리 등)을 갖춘 분
 - 방송선교에 대한 비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영마인드와 윤리관을 갖춘 분
5. **지원서류 및 접수**
 - 접수 기간: 2017. 1.1. - 2017. 2. 28
 - 접수 방법: 우편메일(PO Box 6857, Buena Park, CA 90622)
 - 접수처: 미주복음방송 이사회 사장 청빙위원회 앞
 - 제출서류 *지원서(사전부착) 1부
 - *자기소개 및 신앙고백서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운영계획서 및 비전
 - *추천사유가 기재된 추천서 2부
6. **지원서류 접수방법**
 - 소정의 서류를 작성하시어, 우편으로 메일하시면 됩니다.
7. **심사방법 및 후보자 결정**
 - 1차 서류 심사(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2차 면접 심사
 - 최종후보자 결정 및 통지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허위 판명될 경우 및 도덕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자격사유에 해당하여 선임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미주복음방송 714-484-119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우리 안에는 분노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분노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분노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노 가운데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분(義憤, righteous indignation)이라고 합니다. 불의한 것을 보거나 경험할 때 일어나는 것이 의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의분을 가지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분이라 할지라도 그 의분이 절제되지 않으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분은 절제된 의분이었습니다.

의분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분노는 의분이라기보다는 노함입니다.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노를 발하거나 화를 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잘못된 분노는 폭력적이며 파괴적입니다. 때로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많은 인간관계의 문제와 갈등은 화를 잘못 다루는 데서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화가 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

다. 그래도 그 원인을 이야기해야만 한다면 잘못된 기대에서 생깁니다. 비현실적인 기대에서 생깁니다. 상당히 많은 화의 원인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통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당장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잘못된 분노의 중심에 자아

가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교만이 분노의 씨앗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자신 안에 때로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을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화가 나면 화를 내기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화를 다스려 주시고 평강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낮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 16:32).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잠 15:18).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약 1:19).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때 우리 마음은 분노가 아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 vs 같이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요즘 유행하는 문화가 ‘혼자문화’입니다. 혼밥=식당에서 혼자 밥먹기, 혼술=술집에서 혼자 술마시기, 혼영=혼자 영화보기, 혼놀=혼자 놀기, 혼창=혼자 노래 부르기, 혼메=미용실 가지 않고 혼자 메이크하기, 혼캠=혼자 캠핑가기 등 혼자하는 문화의 미학을 운운하는 글도 읽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자문화’는 셀폰의 대중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가족 수대로 셀폰을 사용하는 시대가 되면서 식탁에 둘러 앉아도 서로의 대화는 없어지고, 각자 텍스트하고 인터넷 브라우징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면 문화충격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셀폰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셀폰을 안보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보는 척이라도 해야할 것 같은 강박관념도 생깁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어색했는데, 셀폰과 함께라면 혼자 먹는 것이 더 자유로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추세에 따라 식당도 아예 혼자 식사하도록 일인용식

탁을 도서관 칸막이 같이 만들어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것이 문화라고 하니 적응하기 힘듭니다. 이제 이런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면, 혼예=혼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있을 수밖에 없는 조직체의 부조리에 식상한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이버 공간의 성도들로 자리매김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우려하듯이 ‘혼자문화’는 점차 사회를 해체하는 해를 끼칠 것이 자명합니다. 제

일 먼저 가족문화를 깨버리고, 가족 관계를 오히려 귀찮고 골치 아픈 것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혼자문화’는 교회를 해체시키는 만 그리스도적 문화로 교회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예배는 어디까지나 보충과 나눔의 의미로 존재해야지 교회라는 공동체를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종환의 산문집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에는 방과 후 집에 갈 때 골장 집으로 가지 말고 길가에 핀 꽃들에게 손도 흔들어주고, 나무도 한 번씩 안아주고 가라는 충고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외롭게 살고 있다 말하면서 나무든 사람이든 먼저 안아주면 그도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것이라 말합니다. 길가에 핀 꽃들에게도 손 흔들어주고, 외로운 나무도 안아줄 수 있는 인간미가 점점 아쉬워집니다.

‘혼자’보다 ‘같이’를 더 소중하게 지켜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같이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같이’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가족과 교회의 ‘가치’입니다.

하와이에서 찾은 행복



김 성 민 목사
펠리세이드교회

하와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으로 여행을 갑니다. 여행자들은 보통 호텔이 물려있는 와이키키에 여장을 풀고 그곳에서 즐기다가 돌아가기에 와이키키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서지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와이키키는 그리 사랑받는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는 장소로는 좋다고 하지만, 조용히 쉬 수 있는 곳으로는 와이키키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들이 물려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며, 바다는 풀장 같고, 다른 곳에서 퍼다 놓은 모래로 만든 백사장이라 자연미가 없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자동차 소리와 빌딩마다 내뿜는 에어컨 소리 때문에 그곳에 사는 분들에게는 그리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와이에 사는 주민들이 가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바닷가들입니다. 여러 군데이었지만 제가 묵었던 호텔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해군기지 바닷가가 그중에 한 장소라고 합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한 20분 정도 머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바닷가였는데 파도가 너무 잔잔했습니다. 나무 그늘도 많았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20분은 하와이에서 있었던 4일을 다 합친 것보다 저에게 더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 전 하와이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 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행복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묵회를 하시던, 동행한 목사님께 참 좋은 곳에서 살고 있으니 좋겠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것을 모르고 삽니다”라고 답해주셨습니다. 감동이 없이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 스스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진정한 감동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먹고 살고 있는가?” 이 글을 쓰며 또 다시 생각해 보니 제가 살고 있는 이곳도 잔잔히 밀려오는 파도 소리와 같은 행복을 주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 행복을 함께 주셨습니다. 실

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행복을 쫓아가라고 하십니다. 자연 가운데, 상황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행복은 이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그 큰 행복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꼭 하와이가 아니더라도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행복은 세상의 날씨와 상황의 변화 그리고 관계의 변화무쌍함 가운데에서도 흐려질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벌여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아니라’고 하며 고집을 피우는 나의 마음입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말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살아가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사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장 33절)라고 하십니다. 혼자서 세상을 짊어지고 가며 메마른 삶을 살지 말고, 무거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면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와이에 가지 않아도 평안과 쉼을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담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선교하는 예수 공동체
Jesus' Community in Mission

www.cinciangro.com

담임목사 청빙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 (KCPP)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참되고 진실하며, 영성, 인성, 그리고 지성을 갖추신 선교 지향적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는 1975년 창립 되어 미국 장로교(PCUSA)소속으로 '선교하는 예수 공동체'라는 비전으로 온 성도가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위해 성경적인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 지원 자격

1. 미국 장로교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신학대학원(M. Div.)를 마치고, 5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3. 한국어와 영어 사용으로 이민 목회에 불편이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1. 이력서
2. 졸업 증명서(대학교와 M.Div.) 및 목사안수 증명서
3. 자기 소개서(신앙고백, 목회 경험, 성장 배경, 가족 사진, 사모와 자녀 소개)
4. 목회 철학과 비전
5. 3인의 추천서 및 5인의 Reference 이름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와 이메일)
6. 최근 1년 이내의 설교 2편(CD또는 youtube link)

■ 서류 제출 마감일 : 2017년 4월 30일(일) 소인까지

■ 제출처

1.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Cincinnati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
Pastoral Search Committee
5178 Steeple Chase Ct, Guildford, IN 47022
2. Kpccsteam2017@gmail.com

■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반 우편과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분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남가주한인목사회 삼일절 기념행사

3월 1일 오후 2시

탈/북/민/동/기/자/선/음/악/회

설교: 피종진 목사 (남서울중앙교회 원로목사)

찬조출연:



LA 정신여고 합창단

특별공연: 통일양상블 'ONE' (대표 나경화 선교사)

통일양상블 'ONE' 연혁

- 2013년 '통일양상블' 설립
- 제6회 중국조선족 민족예술절 초청공연
-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남·북한 통일을 위한 콘서트'
- 미국(애틀란타), 캐나다(토론토)
'광복 70주년 평화통일 콘서트'
- UNIAS KOREA 통일문화연구원 대회 대상
- 광복 70주년 기념 초청연주
'아리랑 세계의 심장을 두드린다'
- 통일부 후원 통일 공감 더하기 단독콘서트



나경화 선교사와 통일양상블 'ONE'의 활동사진

한미장로교회(시무 이운영 목사) 929 S. Westlake Ave.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경찰서 방문 예배 및 Community Service, BBQ 파티

일시: 3월 2일 오전 10시

장소: 올림픽경찰서 (113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글로벌미주부흥사협의회

3.1절 음악회

일시: 3월 5일 오후 7시

장소: 세계아가페선교교회(시무 김요한 목사)
933 S. Lake St. Los Angeles, CA 90006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영적 세미나

일시: 3월 6일-7일(1박 2일)

장소: 실로암수양관

215 W. Graham Ave.
Lake Elsinore, CA 92530

주강사:



피종진 목사
(남서울중앙교회 원로목사)

회비: \$20



남 가 주 한 인 목 사 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회장: 김영구 목사 | 후원 및 광고 문의 Tel: (310)404-6219
보내실 주소: 3407 W.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Pay to Order: SCKMA

“한국교회, 멀리 보고 중국교회와 동역 시대 열어가야”

한국위기관리재단, 중국 선교사 추방 관련 위기관리포럼 열어

“중국교회는 새로운 시험대 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중국교회의 필요와 고민을 알고 장기적 안목으로 중국교회와 동역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2007년 중국에서 100여 명의 한국 선교사가 대거 추방된 지 10년 만인 지난 1월, 이번엔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2개 특정 단체 파송 한국 선교사 32가정이 한꺼번에 추방되며 중국선교가 잠시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종교를 엄격히 통제, 관리, 제한하는 중국에서 현재 강화되고 있는 종교 정책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새로운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요청되고 있다.

한국위기관리재단(KCMS)은 20일 남서울교회 비전센터에서 ‘최근의 동북아 사역자 추방사태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위기관리포럼을 열고, 최근 이례적 선교사 추방 사태에 대한 선교계의 대책과 향후 전망을 논의했다. 이날 만 24년간 안식년 없이 사역하다 지난 1월 쫓겨난 김 모 선교사는 “3년 전부터 고참 시니어 선교사들이 곳곳에서 추방되고, 작년 가을에도 선교사 5가정이 추방되는 것을 보고 당연히 제게도 그럴 때가 가까이 온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며 “수사를 받으며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공안은 작년 말 같은 단체 소속 선교사들의 집을 일시에 압수수색 했고, 과거 선교사만 연행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부부 모두 연행해 밤샘조사를 했다.

그는 “공안은 파송단체의 영문과 자료를 비롯해 선교사 파송장 등 상당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며 “중국 이 선교사를 불허하는 데 한국 파송단체에서 훈련받고 선교사 신분으로 들어와 선교비를 후원받고 사는 것 자체가 불법임을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공안은 후원교회의 후원금액, 사역보고서 등을 관심 있게 물어왔고, 약 3주에 걸쳐 3~4번 소환, 조사를 마친 뒤에는 압수했던 핸드폰, 노트북, USB 등을 모두 돌려줬다고 한다. 마지막 소환 당시에는 불법적, 강압적 조사를 한 일이 없다는 조서에 지장을 찍게 하고, 10일 안에 출국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거에도 3~4차례 공안당국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그는 “이번은 식사, 물도 챙겨주었고, 지장을 찍은 후 휴지도 준비되어 있는 등 일면 ‘신사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김 선교사는 “이런 상황에서 오래되신 선교사들은 좀 여유가 있느냐 몇 년 안 된 선교사들은 큰 충격을 받는데 교회 후원까지 끊어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한국교회가 이들을 위한 후원을 지속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또 “공안은 이미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다”며 “온라인 방식은 해킹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힘들어도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선교사는 마지막으로 “교단이나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중국과 교류할 때 바른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한인교회에서 허락을 받고 사역하는 분들도 쫓겨나는 것을 보며, 교단차원이나 한국 기독교 차원에서 바른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선교사 추방은 계속 이어질 것

이날 함태경 박사(북경대 법학·정치학, CGNTV 경영본부장)는 ‘동북아 사역자 추방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선교사, 목회자에 대한 입국 거부, 비자 연장 불허와 체포, 추방 등이 계속된 중국에서 이런 조치는 현재의 일만이 아니라 예상됐던 일”이라며 “중국 공안의 로드맵에 따라 선교사 추방은 하나의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교사 추방 배경에 대해 “중국은 한마디로 국가가 종교를 지배하고 있다”며 “중국문화가 외래문화를 동화시킬 수는 있지만 외래문화가 중국문화를 변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중국인 특유의 사유방식’이나 ‘역사적 경험’,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종교관 ‘종교오성설’(종교의 장기성, 군중성, 민족성, 국제성, 복잡성) 등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진핑 시대에 교회에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대신 당국자에 지배받는 교회를 선호하고, ‘중국정치체제 인정’, ‘중국사회에의 적응’, ‘중국문화로 표현’해야 한다는 ‘기독교의 중국화’, 또 5진5화(五进五化)를 추진하면서 당국자의 지배를 받지 않는 교회는 더욱 발붙일 곳이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5진은 ‘교회 안에서 종교정책법규 적용, 건강의료와 과학기술지식 도입, 빈민구제 적용, 전통문화 도입, 화해사회 건설 적용’을, 5화는 ‘교회건축의 중국화, 교회사무관리의 규범화, 강단사역의 본토화, 교회재무의 공개화, 신앙교회의 적응화’를 말한다.

그는 특히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종교사무조례(7장 47조)가 2016년 9월 7일 수정초안(9장 74조)으로 확대된 것은 “향후 중국사역을 위한 또 하나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2005년 전국적으로 종교사무조례 집행 시 많은 사람이



한국위기관리재단 사무총장 김진대 목사가 포럼에 앞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함태경 박사는 “한국교회가 중국교회와 동역의 필요와 고민을 알고 장기적 안목으로 중국교회와 동역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느 세월에 집행되느냐고 낙관했으나, 중국 정부는 이와 동시에 서서히 선교사 추방, 체제 상황을 찾고 있었고 2016년 이를 수정해 더 강력한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종교사무조례 수정초안의 9장은 ‘①종교계의 합법적인 권의 보호 ②종교를 이용해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원천 봉쇄 ③정부의 책임 직무의 명확화 ④종교단체 직능의 강화 ⑤종교학교에 대한 관리 강화 ⑥종교 활동의 법인 자격에 대한 명확화 ⑦인터넷과 종교사무 관리 문제 ⑧종교 재산권 귀속 영문화 ⑨종교를 이용한 비즈니스 문제 해결’이다. 그는 “이 수정안은 과거보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 상당수 바뀌기 어렵다고 본다”며 “중국교회가 외부의 압박이 올 때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할지는 중국교회의 숙제이고 더 나아가 선교사들의 숙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기독교를 국가 안전을 해치는

결정적인 세력으로 보지 않지만, 기독교 발전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기독교인이 상상 이상으로 많아져서 중국 정부의 경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2030년까지 2만 선교사 파송하려는 중국교회, 우리의 역할은?

함태경 박사는 “지난 2011년부터 중국 정부는 체제 밖 가정교회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3단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자신의 로드맵을 가지고 기독교를 관리할 수밖에 없고, 전통적인 가정교회는 체제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충돌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신 중국의 가정, 도시교회는 중국정부가 요구하는 ‘참다운 대안세력’, ‘성숙한 시민의식’ 등을 보여주어야 하고, 한국 선교사들도 이를 돕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예 선교사 리쿠르팅 단계에서부터 중국교회의 필요, 즉 ‘선교중국 2030’에서도 언급된 ‘목양의 전문화’, ‘신학의 표준화’, ‘선교교육과 훈련의 보편화’를 인식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추방된 선교사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평생 책임지는 마음으로 반드시 토벌케하는 물론 화교교회로의 재배치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밖에 목회자와 함께 중국교회와 미래를 이끌 평신도 그룹을 깨우기 위한 청년학생선교운동과 지식인 선교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영성, 지성, 감성의 조화와 균형을 갖춘 정예화 된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고 이들과 협력하는 방안, 또 중국형 ‘두란노 서원’, ‘진로와 소명 미니스트리’, ‘성품학교’, ‘코칭스쿨’, ‘시니어스쿨’ 등 중국교회와 새로운 동역 모델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집

단지성을 이용해 사람, 소프트웨어, 정보 간 시너지를 창출하며 전통적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탈피해 아날로그적으로 접근하는 등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융합시켜 나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함태경 박사는 “우리는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준비하실 것이지만, 우리도 선교적 리셋이 필요하고 중국교회와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 동역의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교회가 2030년까지 2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는데, ‘백투 지저스 정신’(Back to Jesus)을 중국교회와 같이 나누는 한국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노고를 또 다른 열매로 이끌어가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대 KCMS 사무총장은 이날 “여러 위기가 닥치는 것은 결국 위기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방, 납치, 인질, 폭력 등 아무리 어렵고 힘든 위기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정환 KCMS 훈련원장, 이기동 군포 새가나안교회 목사는 각각 선교단체와 파송교회의 대처방안을 나누었고 참석자들은 종합토론 시간을 가졌다.

10여년째 중국에서 사역해 온 한 선교사는 “중국 정부가 분명한 로드맵을 가지고 선교사 추방을 계속하고 있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선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사역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더 많이 기도해주면 좋겠다”며 “마지막 때 한국교회에 준 중국교회를 돕는 사명을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이제, 제임스 박은 엘몬테 윈 현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017 Hyundai Elantra SE – Lease for only \$79 per month plus tax

1 at this offer HH503114
36 month closed end lease on above average approved credit. \$3,495 cash or trade equity due from customer plus \$1500 Lease Cash (must finance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plus \$500 Valued Owner Coupon (Customer must be a current registered owner of a Hyundai vehicle may not be combined with Competitive Owner Coupon) \$5,495 total drive off. No security deposit. Lease responsible for excess wear and tear and mileage at 20¢ per excess mile after 30,000 total miles. Based on above average credit, not all customers qualify, see dealer for details.

2016 Hyundai Veloster – Lease for only \$89 per month plus tax

1 at this offer GU286105
36 month closed end lease on above average approved credit. \$2,995 cash or trade equity due from customer plus \$3,000 Lease Cash (must finance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plus \$500 Valued Owner Coupon (Customer must be a current registered owner of a Hyundai vehicle may not be combined with Competitive Owner Coupon) \$6,495 total drive off. No security deposit. Lease responsible for excess wear and tear and mileage at 20¢ per excess mile after 30,000 total miles. Based on above average credit, not all customers qualify, see dealer for details.

**지금 가장 좋은 가격에 현대차를 구입하시면
손님이 소속해 계신 교회에 \$100을 기부해 드립니다!**

* 자세한 문의는 제임스박에게 전화 주십시오

“Broker Deal 환영합니다”

James Park 213.839.3332

www.winhyundai.com
3462 N. Peck Rd., El Monte, CA 91731



서창원 박사가 특강을 전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복음선포 사역 통해 효과적인 구제 사역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제31기 정기세미나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원장 서창원 박사) 제31기 정기세미나가 20일 오후 서울 한릉로 세곡교회(담임 박의서 목사)에서 2박 3일간 일정을 개막했다.

‘사회 개혁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19세기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청교도로 효과적인 복음 선포 사역과 더불어 행함이 있는 신앙을 구현한 토마스 찰머스(Thomas Chalmers, 1780~1847)의 생애와 사상을 다뤘다.

개혁(칼빈)주의 신학계에서 사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참가자들도 기대감을 표시했다. 설교연구원 김준범 실행이사(양의문교회,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사회 개혁을 주제로 다루는 것은 처음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절묘하게 맞물린 것 같다”고 전했다. 설교연구원 총무 강문진 목사(진리교회)도 “사회 개혁이란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의서 목사(세곡교회)는 “한국교회는 6·25 전쟁 이후 북한과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인지, 너무 이념지향적일 뿐 아니라 이념 아래에서 이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다”며 “기독교 세계관이란 모든 것들 사이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어느 한쪽 편에 서는 결과 밖에 되지 않고 목회자들의 성향에 따라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국 대안은 성경 속에 있다”고 덧붙였다.

첫 강의에서 찰머스를 소개한 서창원 박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그를 조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20세기 후반부터 개혁교회가 듣고 있는 비평들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개혁교회는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수구적이며 사회문제에 대해 무관심 내지 무대응을 한다는 비판”이라고 밝혔다.

서 박사는 “개혁주의 신학은 언제나 정확무오한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성경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명제에서 출발하므로, 안티 세력들의 도를 넘는 비판적 폭언들이나 건전한 비평가들에 의한 충언들까지도 교회의 머리에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훈하신 가르침을 넘여갈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도 없으므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러한 시도를 찾아보고 오늘 우리의 현실을 점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찰머스 박사는 스코틀랜드에 진짜 필요한 소망은 새로운 설교자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라 믿고, 설교자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젊은이들을 돕고자 했다”며 “그의 이러한 이상 실현은 에든버러 신학교수로 부임하자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에든버러대학교 부임 후 소천받을 때까지 20년 동안, 그의 강의를 들은 수백명의 학생들이 스코틀랜드와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의 일꾼으로 활약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코틀랜드 교회 복음주의 진영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고, 1832년 총회장에 선출됐다. 이후 1843년 교회의 영적 독립성 문제로 교단이 분열했을 때, ‘Free Church of Scotland’ 교단 창설자이자 초대 총회장이 됐다.

1844년 말부터는 에든버러 웨스트트루크 주민들을 개선하는 작업에 몰두한다. 당시 불결하고 더러운 지역으로 악명 높았던 그 지역은, 찰머스 박사의 계획에

따라 각 가정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살인 사건으로 유명해져 발길이 끊긴 장소에 학교를 열고, 폐쇄된 공장을 수리해 주일예배 처소로 사용했다.

서창원 박사는 “찰머스 박사는 에든버러에서 가장 가난한 우범 지역을 택하여 사회 개혁과 영적 갱신운동을 펼쳤던 것”이라며 “노와 12명이 참석했던 곳에서 교회당이 지어지고, 1847년 2월 19일 입당예배를 드릴 때는 130여 명의 세례교인들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것이 찰머스 박사가 했던 마지막 공식 행사가 됐다. 1847년 5월 28일 런던에 가서 국가적 교육문제를 의논하고 돌아온 그는 종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잠이 들었는데,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며 “그의 장례식 행렬에는 10만 명이 나와 애도했다. 이처럼 그가 시작한 사회 개혁과 종교 갱신운동은 스코틀랜드 역사에 길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서 박사는 “그러면서도 찰머스 박사의 주된 관심은 교회의 확장이었다. 클래스고에서 사역할 때부터, 그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스코틀랜드의 영적 기후를 바꾸고자 했다”며 “그를 설교자로서 큰 인물이 되게 한 에너지는 실천적인 행동에 있었다. 회심 후 그의 가장 큰 숙제는 ‘스코틀랜드에서 국민 개개인의 집과 모든 가정들을 복음으로 접촉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였다”고 설명했다.

서창원 박사는 “복음선포 사역으로만 효과적인 구제 사역이 가능하다고 설파했던 그의 호소는 지금 개혁교회 지도자들이 깊이 되새겨야 할 진리로, 그런 의미에서 그는 설교 준비와 전달에 혼신의 힘을 다했고 결핍기식 강론이 아니라 맑은 샘물을 파올리는 깊이 있는 성경 연구와 적용에 힘썼다”며 “성도들이 사는 사회의 변화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의 추진력에서부터 구현되기 때문”이라고 정리했다.

또 “찰머스를 통해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은 개혁과 장로교회는 단순히 교세 확장의 한 방편으로서 복지활동에 깊숙히 간여할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일을 먼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복음으로 인한 심령의 변화가 없는 선한 행실들은 불신자들의 자선행위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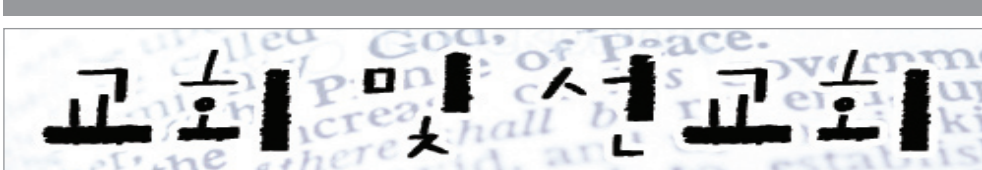
이번 세미나에서는 2박 3일간 ‘토마스 찰머스와 교회 이해’, ‘토마스 찰머스와 교회의 지도력’, ‘토마스 찰머스와 교회의 섬김’, ‘토마스 찰머스와 교회의 국가’, ‘토마스 찰머스와 교회의 메시지’ 등이 발표됐다.

이 내용들은 당초 주강사로 내정됐던 이안 캠벨(Iain D. Campbell) 박사가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월 갑작스레 소천받으면서 서창원 박사가 원고를 대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 원고들은故 이안 캠벨 박사의 유작이 됐다. 이안 캠벨 박사는 3년 전인 2014년 설교연구원 정기 세미나 강사로 참석했으며, 원장 서창원 박사와 영국에서 함께 공부한 사이이다. 한국 나이로 54세의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소천받았다. 이번 마지막 원고 발표는 영국 BBC 방송에서도 취재했다.

이 외에도 찰머스 박사가 초대 총회장을 지낸 교단의 프리처치신학교 모리스 로버츠 박사(Maurice Roberts, Banner of Truth 전 편집장)가 ‘칭의: 놀라운 선물’, ‘로마서 7장에 있는 하나님 도덕법의 세 가지 용법’, ‘유기에 대한 성경적 이해’ 등을 저녁집회에서 강의했다. 특강에는 신동식 목사(빛과소금교회)가 나섰다.

이대웅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점심예배 오후 2:22
주일-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17와비몬트코너
주중새벽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개우고 이만2세를책임지며, 이만2가정을치료하며, 선교영광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언덕서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주일학교 오전 11:2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2:45
금요기도회 오후 7:0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후 1:00
한여청년부 오후 1: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생명이 넘치는 교회, 복사음을 잃어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박한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집회 오후 7:00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일복인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전도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중호 담임목사

에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마음, 몸,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초를 켜고, 천주 정신의 초를, 바른교회관의 초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오전 11: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령과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주일감사예배 : 주일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 저녁 8:00
금요성경집회 : 저녁 8:00
교회학교(Child Youth) : 매주 주일 오전 11:00

강양규 담임목사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213)465-9693, (213)434-1083 www.new2011.org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대표 주해홍 목사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종교동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장성림교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일장성림교회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50 S. Rosemead Blvd., Pasadena, CA 91107
T. (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출감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9: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일 오전 10:30 EM 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사우스 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일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 KPCA 해외한인장로회 교단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아침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u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일성경대림회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권오균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62-9191 F.(818)862-9777 www.churchmannam.net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새벽 미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EM/YOUTH 예배 오후 1:30 금요일마미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300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348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818)363-5857

LA에베레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8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63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뉴욕열방교회 선교부와 한국의 NGO 월드쉐어, 함께하는 사랑발, 재외한인구조단이 지난 12일 열방교회 3부 주일예배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열방교회 안혜권 담임목사(좌)와 3개 NGO 대표를 맡고 있는 권태일 목사(우)가 MOU에 사인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열방교회, 한국 NGO와 업무협약

개교회와 NGO의 협력으로 선교 사역 업그레이드

아이티에서의 지속적인 선교활동과 돌봄 사역으로 선교의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뉴욕열방교회(담임 안혜권 목사)가 NGO와의 협약을 통해 또 다른 선교사역의 비약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열방교회는 지난 12일 주일 3부 예배 때 열방교회 선교부와 한국의 NGO 함께 하는 사랑발, 월드쉐어, 재외한인구조단(대표 권태일 목사)과의 MOU(업무협약식)를 체결했다. 이 단체들은 한국에서도 활발한 사역으로 손꼽히는 NGO다.

이번 MOU 체결은 본격적인 해외 선교와 구제 사역을 함께 이뤄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앞으로 양측은 한국의 NGO본부 뉴욕지부를 설립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면서 세계 선교 및 빈민 구제, 가난 퇴치, 그롭홈, 아동결연, 지역개발, 의료지원, 식수개발, 교육지원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게 된다.

열방교회가 지향해 온 아이티 선교사역은 단순한 물품지원 및 복음전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폐허가 된 현지에 유치원을 비롯한 학교를 건설하고 현지인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등 마을 자체를 변화시키는 전방위적인 사역이었다.

이에 이번 NGO와의 협약으로 개교회의 선교 사역이 NGO와의 협력으로 인해

어느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모은다. 뉴욕열방교회는 이번 MOU 이후 첫번째 사업으로 아이티 지진 이후 17차례 아이티를 방문해 진행했던 복구 사역에 발맞춰 2018년 1차 완공을 목표로 교회, 학교 지역개발을 시작한다.

또 미국에 위치한 특수성을 살려 재외한인구조단의 사역을 활발히 하기 위해 해외에 흩어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인들을 한국으로 귀국하게 하는 구조사업도 진행중에 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미국에서 갈 곳이 없는 이들이나, 한국에 가고 싶으나 받아줄 식구나 연고지가 없는 이들을 한국으로 인도해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거나 거처를 찾아주는 일을 하게 된다. 열방교회는 이 사역을 위해 뉴욕의 한인회와도 MOU를 맺고 적극적인 재외한인 구조에 나선다.

열방교회 담임 안혜권 목사와 권태일 목사는 15년 전부터 알고 함께 비전을 공유해 왔던 동역자 관계로 권태일 목사는 지난 10일부터 열방교회 창립 19주년 부흥성회 강사로 집회를 인도하기도 했다. 열방교회의 특수한 선교 사역에 따른 NGO 대표의 창립기념 부흥회 인도와 MOU 체결은 열방교회의 창립기념일을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7년 양대회 목회자 계속 교육이 개최됐다.

PCUSA 남대서양대회·생수대회 목회자 계속 교육 개최

미국장로교(PCUSA) 남대서양대회와 생수대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7년 양대회 목회자 계속 교육’이 지난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한빛교회(담임 이문규 목사)에서 개최됐다.

양대회 측은 “점점 세속화 되어 가는 시대에서 교회를 갱신하는 목회의 본질을 파악하고, 나아가 교단 목회자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목회자 계속 교육 강사로는 총회 한인목회실 총무 조문길 목사가 나섰다. 조문길 목사는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

고 루이빌과 칼리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동부한미노회 총무 등을 역임했다.

조문길 목사는 ‘21세기 행복한 목회 매뉴얼’을 주제로 ‘하나님과 교회’, ‘장로교회 신앙의 근거’, ‘기독교 역사와 장로교운영’ 등에 대해 강의했다.

조 목사는 “장로교회의 기초와 정신을 알면 교회목회와 행정이 이해가 된다. 신앙고백과 규례서가 장로교회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것으로 목회를 계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규칙을 통하여 오히려 교회와 목회자가 성숙되어 간다”고 강조했다.

윤수영 기자

삼일절 맞아 제 14차 워싱턴주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개최

한민족의 평화 통일을 준비하고, 교단과 교파를 넘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제 14차 ‘워싱턴주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지도위원 오대원 목사, 대표 권준 목사, 총무 박상원 목사)가 오는 3월 5일(주일) 오후 6시, 시애틀 베다니교회(최창효 목사, 15414 Ash Way Lynnwood, WA 98087)에서 열린다.

이날 기도회는 오대원 목사에 이어 새

롭게 성령의 샘 대표로 추대된 피터 양 목사가 설교할 예정이며, 삼일절을 맞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로 진행된다. 이날 기도회는 △한반도 화합과 평화 통일을 위해 △남북통일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할 예정이다.

문의) 박상원 목사 425-275-8072

미국인 10명 중 3명 정도만 교회의 정치참여 찬성

미국인 10명 중 3명 정도만 ‘존슨 수정조항’ 폐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닝컨설트와 폴리티코가 약 2,000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교회 등의 정치참여 여부에 대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강단에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은 전체의 30% 미만이었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종교 단체들의 정치참여 허용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한 복음주의자들 중 40%는 ‘교회는 반드시 정치적 후보들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지지 선언은 불가하다는 복음주의계 응답자는 41%였다.

모닝컨설트는 “존슨 수정조항 폐기는

공화당의 기반이 되는 백인 복음주의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지만, 의회에는 매우 큰 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치 자금이 비영리단체로 흘러들어 재정의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존슨 수정조항을 뒤집을 경우, 목회자가 강단에서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그러나 미국 내의 예배당이 정치 활동을 위한 위원회로 바뀔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교회 등 종교단체의 정치참여를 금지한 ‘존슨 수정조항’을 폐기할 뜻을 내비쳤다.

강혜진 기자

구조 현장에서 구한 신생아 입양 美 소방관 ‘감동’

주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20일(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한 소방관이 구조 현장에서 만난 신생아를 팔로 입양한 사연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머틀비치(Myrtle Beach)에 살고 있는 마르크 헤이든 씨는 한 귀여운 소녀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와 아내는 소녀의 이름도 ‘그라시아’(Gratia)라고 지어주었다.

그는 약 5년 전인 2011년 11월 14일 그라시아를 처음 만났다. 머틀비치 소방관이었던 그는 이날 한 여성으로부터 긴급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향했다. 헤이든 씨가 동료 소방관들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산통을 겪고 있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출산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그 때 그라시아가 바로 나왔고, 산모는 내게 아기를 넘겨주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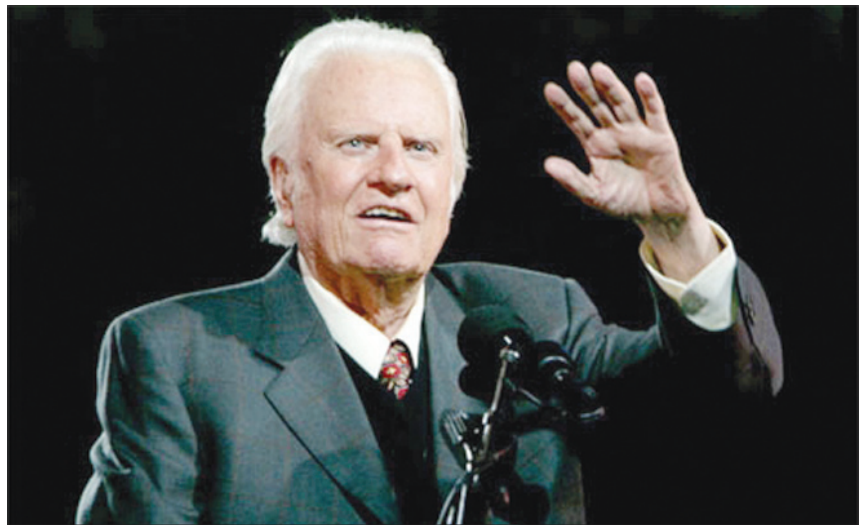
헤이든 씨와 동료들은 두 사람을 병원으로 옮겼다. 그리고 산모가 노숙자이며, 아이를 입양보내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오랫동안 아내와 함께 딸 아이의 입양을 놓고 기도해왔던 그는 너무 시간이 절묘하다고 생각했다.

이틀 후, 헤이든 씨는 병원에서 갓난 아이를 데려와 그라시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이미 2명의 아들을 둔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부부는 아이를 더 가질 수 없어서 입양을 원했고 항상 딸 아이의 입양을 꿈꿔왔다”면서 “내가 그라시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환하게 웃는 아내의 표정을 보며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빌리 그레함 목사 ©빌리그레함전도협회

TV로 예배 드리는데, 굳이 교회 가야하나요?

빌리 그레함 목사가 “TV를 통해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레함 목사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캔사스 시티스타’의 한 독자가 “집에서도 예배를 방송으로 볼 수 있는데 굳이 교회를 가야할 필요가 있나요?”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질문자는 “전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는 모든 번거로운 과정을 생각하면, 결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TV로 예배를 보는 것이 잘못된가요? 방송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데, 굳이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그레함 목사는 “특히 저처럼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한 면이 있다”면서도 “직접 참석할 수 있음에도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놓치는 점들도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먼저, 성도들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특히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신앙

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신은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교회의 중요한 역할은 단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기회를 찾으며 이웃을 돌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직접 참석하기보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선호하게 됐다.

이에 대해 남침례회 신학대학원 알버트 몰러 총장은 교회에 직접 나오는 대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대해 “기독교인들에게 위험한 행위”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몰러 총장은 지난 2012년 4월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이 함께 모이라고 강조하셨다. 성도들 간의 친교는 은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온라인 설교와 기독교 웹사이트를 통해 풍성한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지역교회와 사역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진정성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O.C./앨버틴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바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P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원부E college 주일 2:00PM
제지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일전날야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화요일기도회 7:00pm 토요일전날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양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제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아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생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원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벤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u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화-토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새벽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허귀암 담임목사

놀익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일양양예배 8:00pm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EM주일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시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점심이예배)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일새벽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학교 11: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주일 3부예배(영어) 1:30 PM 토요일 6:30 AM
금요일양양예배 7:30 PM

이원준 담임목사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아부 오전 11:30
KMC대학원부 오후 2:00

권혁빈 담임목사

앨버틴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원부 오후 1:30

홍성준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요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FAME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어)

박경호 담임목사

앨버틴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토요일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 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j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양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림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는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6: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일 성령집회 :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성령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일기도회 : 금요일 오후 6: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201]313-0899
725 Grand Ave #305
Ridgefield, NJ 07067

플러싱 지사
[718]928-3333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로스앤젤레스 지사
[213]739-2222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토론토 지사
[647]686-6000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서울 지사
[02]739-0890
Doosan We've 58 #1238
Jongno-gu, Seoul

여행설계사
데비드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기독교일보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생생한 종교개혁의 현장을 체험하세요~

실제 모형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성경속 산책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5일 \$999 ▶문의 (항공포함)

▶시카고-인디애나폴리스-신시내티-인디애나폴리스-신시내티

- ① 시카고 시티 투어 - 밀레니엄 공원 / 시청
- ② 인디애나 폴리스 주 의사당 외부관람
- ③ 청조박물관 - 성경 창세기의 천지창조 기록물을 보관
- ④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ARK투어 - 실물크기의 노아방주 모형
- ⑤ 신시내티 내셔널 언더 그라운드 레일로드 프리덤 센터
- ⑥ 링컨생가 및 뮤지엄 - 남북전쟁에서 노예 해방을 이끈 대통령의 생가, 뮤지엄
- ⑦ 맘모스 케이브 국립공원(세계최장 동굴) - 켄터키주에 있는 메머드 동굴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유럽 4개국 성지순례와 문화탐방

8일 \$2,600 ▶4/24 (항공포함)

▶프랑크푸르트-하이델베르크-프라이부르크-루페른-취리히-로텐부르크-프라하-드레스덴-비텐베르크-라이프치히-아이제나흐-프랑크푸르트

- ① 황태자의 첫사랑 하이델베르크 & 칼뱅 종교개혁지 순례
- ② 유네스코 문화유산 뷔피 프랑크 스트라스버그
- ③ 호반의 도시 스위스 루체른 & 초빙글리 취리히
- ④ 보헤미안 천년성 체코 프라하와 안후스 개혁지
- ⑤ 종교개혁 메카 루터 비텐베르크 & 라이프치히

새로운 여행 문화를 창조하는 푸른여행~ 푸른감동~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 강촌 같은 간이 마을 기차나들이

특선 1 기차요금 포함/중식포함
가이드 팁포함

\$99 오션사이드 당일 기차

▶출발: 매주 토요일

100명 선착순 모집~ 서두르세요~

특선 2 샌하진토 케이블 카
아울렛/온천

\$129 4차/조슈아트리 온천

1박2일 ▶출발: 3월 9일

이민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여행

특선 3 캘리포니아의 민발한
아몬드꽃, 자두꽃 감상

\$179 캘리포니아 과수원 꽃

1박2일 ▶출발: 2월 27일

유일한 한국 안보 관광 투어입니다

특선 4 포항-울산-경주-평창
고성-서울-평택-철원 등

\$1,750 2017 재향군인가족 5박6일

(항공포함) 안보산업시찰단(한국) ▶4/10



기존 세도나와 완전 차별화된 코스

미티어 크레이터 / 세도나 기차 / 생태 크루즈

▶'세도나 기차' (\$100 상당 옵션 포함)



최고의 자연석조 다리를 만나보세요

레인보우 브릿지 / 모뉴먼트 벨리

▶레인보우 브릿지로의 가벼운 산책 후 만나는 300피트 자연 석조 다리



드라마 '도깨비' 속 퀘벡에 가다

캐나다 동부 5일 \$1,299 (항공포함)

▶매주 금 ▶토론토 시내관광 - 세인트 로렌스 마켓 ▶오타와 의회 연방의사당 리도홀



▶3월 18일 특별출발

“태양의 신전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미스테리 Kukulan의 기적은 3월 20일(목) 3:30pm~5:30pm 사이 펼쳐집니다.”

최고급 5성급 호텔 숙박 (Riu Resort) 항공/호텔/식사/주류/관광/안내 일체 포함

미서부, 동부, 캐나다, 한국 모든 여행을 푸른투어 5개 지사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대자연과의 만남 미서부

다른 회사와 차별화된 미서부 관광

- ① 라스베가스 특급호텔 몬테카를로 호텔 숙박
- ② 디렉스 리무진 라스베가스 야경 투어

▶매주 월 그랜드 캐년 / 브라이스 캐년 / 자이언 캐년

3대 캐년 4일 \$389

3대 캐년 +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4일 매주 화 - 7일 매주 화/토

4대 캐년 4일 \$389

4대 캐년 +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매주 화/토

그랜드 캐년 / 라스베가스 3일 \$299

▶매주 월/목/금/토

요세미티 / 샌프란시스코 4일 \$389

▶매주 화/토

미서부 실속 여행 6일 \$599



“9대 캐년 완전정복” 그랜드 씨클

6박 7일 \$829 ▶3/24, 4/8, 4/28

▶매일 출발 (4인 이상 한정가이드)

올베라거리/다운타운/다저스스타디움/그리피스천문대/힐리온거리/로데오거리(차량관광)/산타모니카해변/파머스 마켓/그로브 몰 등

그랜드 캐년 / 브라이스 캐년 / 자이언 캐년 / 아치스 캐년 / 앤젤로프 캐년 / 모뉴먼트 벨리 / 캐피틀 리프트 / 캐년 랜즈 / 글렌 캐년

“특급 몬테카를로” 미서부 4대 캐년

3박 4일 \$389 ▶매주 화 출발

자이언 / 브라이스 / 앤젤로프 / 그랜드 캐년

한국 벚꽃맞이 한국일주 8일 \$2,099

천년의 계곡 애고령 공원/원림의 유람선 [대한항공] ▶3월 30일

-부여/담양/화계정려관광/통영항과 한산대첩지/진해 벚꽃

“아름다운 우리강산을 동서남북 누비다”

160,000마일리지 전국일주 7일 ▶토 \$1,140+항공

85,000마일리지 서남부 4일 ▶토 \$610+항공

85,000마일리지 남동부 4일 ▶화 \$610+항공

60,000마일리지 한려수도 3일 ▶월금 \$430+항공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상품구매 가능!!

정통 미국을 즐기려면 미동부

① 푸른 유일 \$100 상당의 3대 옵션 포함 - 타사 비교 요망

1) 자유의 여신상 2)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입장료 3) 시너덕널

② 서부 여행사 유일하게 타사 예약이 아닌 푸른이 직접 행사

실속 미동부 5일 (뉴욕/워싱턴 DC/마이아미) ▶매주 수/토 \$799 (항공포함)

미동부 6일 (미동부 5일+천선) ▶매주 수/토 \$89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7일 (미동부 5일+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049 (항공포함)

미동부/캐나다 8일 (미동부 6일+몬트리올, 레이크즈지, 퀘벡)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캐나다 10일 (미동부/캐나다 8일+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299 (항공포함)



라스베가스 특급 몬테카를로 호텔 숙박

최고급 디렉스 리무진 야경투어~



푸른투어 LA
PRT Tour & Consulting
cst# 212654040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무료픽업 가능: 가든그로브/토렌스/세리토스/가디나/다이아몬드 바

광고상의 모든 컨디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항공상품은 비수기 기준으로 성수기시요금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 공원 내에 있는 벳새다



어부의 집이란 비석이 보인다. 이곳에는 마가복음 1장 16-18절에 기초한 예수님의 이야기도 나온다.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23)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

베드로의 고향 벳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을이었던 가버나움에서 동쪽을 향하여 갈릴리 바다 해안을 따라 4마일 정도를 진행하다 보면, 헬몬 산(Mt. Hermon)에서 발원한 요단강과 만나는 지점에 이른다. 이 요단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지나면 베드로의 고향 벳새다(Bethsaida)에 이르게 된다.

갈릴리 최대 도시인 티베리아스에서 이곳까지는 90번 도로를 타고 오다 골란 고원으로 가는 87번 도로를 경유하게 되면 약 13.8마일로, 차로 22분 정도가 소요된다.

보통 관광버스로 이곳을 찾게 되지만 이곳은 일반 성지순례 관광지라기보다는 고고학적 발굴 유적지에 가깝다. 따라서 외국 순례객들보다는 학자들이나 요단강에서 카누를 즐기려는 이스라엘 시민들이 자주 찾는 장소다. 그래서 티베리아스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방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곳에서 길이 나누어져 북쪽으로 계곡을 타고 888번과 918번 도로를 올라가면 헬몬 산 쪽으로 직행할 수 있다. 1967년 6월 전쟁 이전에는 이곳이 시리아와 국경이었으나 이 전쟁 이후 골란 고원과 함께 이 지역은 이스라엘 영토가 되었다.

벳새다의 역사

이곳은 “The Fisherman House,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어부들의 중요 주거지였던 곳이다.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요 1:44)이라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다.(막1:16-18)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행하시

던 곳이었으나 도시가 완악하여 믿지 않으므로 화 있으리라고 책망을 당하고 이 후에 도시는 지진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현재의 벳새다는 가버나움에서 상류 요단강을 건너 좌측으로 난 도로를 올라가면 나온다. 요단강 공원 내로 들어가서 좌측으로 가면 고대 벳새다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 이전부터 물고기를 잡는 항구 도시로서 역할을 하였던 곳이고 성경에도 도시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상당히 번성한 도시였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로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집터들이 모습들이 나타났다. 아마 이곳은 요단 강물과 갈릴리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기때 상당한 어업이 진행되었음을 보여 준다.

장소보다 중요한 영성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빈들에서 일어났다고 기술하고 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벳새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고 주께서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일어난 질병이여의 기적에 대하여 또 다시 기록하고 있다. 갈릴리에 와서 보통 타브하라는 곳에 있는 오병이어 기적 기념교회를 방문하면서 이곳이 벳새다인지 빈들인지 알지 못하고, 누가복음에 따라 벳새다인 줄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정작 벳새다는 이곳에서 상류 요단강을 건너야 나온다. 거리로 치면 타브하와 벳새다는 3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 사람들이 물기를 왜 벳새다로 가지 않고 타브하로 오느냐 한다. 그것은 고대 교회의 흔적이 타브하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벳새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말인가? 성지 순례 중에 장소 때문에 의견이 갈리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예수님 무덤)이며 그 다음이 갈릴리의 벳새다다. 어느 곳이 맞는지는 역사적 자료와 고고학적 증명 또는 교회의 주장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일이면서도 중요하지가 않다. 골고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며 벳새다 들날도 주의 영광이 나타난 장소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일어난 주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따라서 타브하나, 벳새다나 하는 장소 싸움도 별 의미가 없다. 장소만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성이 없다면 모양만 본 것이지 알맹이를 맞출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벳새다에서 바라보는 내일

오늘날 벳새다는 순례객들이 잘 모른다. 이곳을 방문하고 싶더라도 순례객들은 여행사들이 잘 정리해 놓은 코스를 따라 관광버스를 타고 정해진 시간 내에 일정을 마쳐야 하므로 벳새다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기 쉽다.

벳새다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요1: 14)이었고, 예수님이 자주 들르셔서 사랑을 베푸신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중에 믿음이 없어 주님의 책망을 받고(마11:21) 무너진 곳이다. 히브리어로 물고기 사냥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벳새다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의 딸 벳새다 율리오의 이름을 딴 것이라는 설도 있다. 빌립도 사역을 마친 후 이곳에서 사망하였다고 한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갈릴리 바다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며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성곽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벳새다 출신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 그들은 생선을 낚는 어부였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참되게 만났다면 사람 낚는 어부로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다.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 있는 아람

다운 곳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다. 벳새다 방문 후 시간이 난다면 요단강 공원 내에서 급류타기를 즐겨볼 수도 있을 것이다.

〈계속〉



서병길 교수
이스라엘교회
캘리포니아신학교

필자와 함께 가는 영성순례
이스라엘-요르단
2017년 3월 15일~24일
*문의: 213-505-1583
*이메일: iskms@hanmail.net

2017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발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aeu.edu

**충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 이동규 박사 학장 :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목사인수,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땀과 피를 흘려서 생명을 전하라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원
한의원 **Zo'e 조애**
Tel: (213) 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 (8th & Lake St.) (일수토 예약 필수)

2017 CD PRINTING
문의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교회성경,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망, 대망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신년맞이 패키지 (8인용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160 (디자인 포함)
\$65 (디자인 포함)
\$140 (디자인 포함)

시티보험 자회사 CA Lic. #0156071
메디케어 올해 65세 되십니까?
메디케어 신규 가입 & 변경 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Part C) ■ 메디케어/메디칼 (변경기간 상관없음)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 메디케어 등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문의 상담 **213-321-0302 Connie Kim (김경미)**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 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팔짚빵
부추교자 (50개 \$20)
김치교자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 시내· 타주 이사· 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통증
✓ 발가락 {퇴행성 관절통증
✓ 마디관절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 (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 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 10시~5시 / 토 10시~2시

한국의 맛
우리반찬
KOREAN FOOD
THE BEAUTY OF KOREAN FOOD
최고의 기회 NO MSG
웰빙푸드 전문점
선별된 좋은재료, 최고요리 전문가의 정성어린 손길로 모십니다.
• 스페셜 다이어트 푸드
• 자연의 맛 그대로 조리된 각종 반찬
• 전통 찜요리 (궁중찜, 갈비찜, 코다리찜, 조기찜, 묵은지 등갈비찜)
• 웰빙 김밥
• 김치류
연말 연시 캐더링 주문 환영
Tel: (213) 388-0022
356 S. Western Ave. #106, Los Angeles, CA 90020
찾아오시는 길
Western Ave 4TH

[제임스 구 교수의 기독경영 칼럼 3]

성경적 경영 원리와 철학

I. 기업 경영과 성경적 원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삶을 효과적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 지금까지 쓰여진 ‘교과서’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이다. 예를 들면, 솔로몬은 “백성으로 하여금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잠언을 썼다. 잠언은 아래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된다.

잠언 1: 1-5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세상의 철

학과 진행방법에 기만 당하거나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골로새서 2: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II. 성경적인 경영 철학

경영에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는 출발점은 세속적인 경영 철학과 성경적인 경영 철학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때부터이다. 마태복음 20장 20-28절은 세상의 경영 철학과 예수님의 경영 철학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세베대의 아들들(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에게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 바로 다음 가는 두 지위를 주시길 간청했던 사건에서 알 수 있다.



제임스 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세상의 경영 체계 내에서는 조직 계층을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은 권력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통제력을 보유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청한 주된 이유이다. 또한 그녀의 간청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열 제자들의 반응은 분히 여겼다. 그 이유는 그들도 가장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세상의 경영에 대한 접근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 있다. 실제로 경영의 전통적인 정의는 “다른 사람들

을 통하여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Getting work done through others)이다. 전세계적으로 수 십년 동안 경영학 교과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정의는 권력과 통제가 경영자의 계획, 목적 그리고 목표들을 조직 내 다른 종업원들을 통해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마 20장 25-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경영 철학이 세상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1. 새로운 리더쉽과 경영 철학

첫째로, 예수님이 새로운 리더쉽과 경영 철학을 도입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영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대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 지위나 권력을 사용하지 말고 섬기는 자로서 행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경영자가 조직 내에서 지위

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는 종과 같이 섬겨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는 것이다.

2. 섬겨야만 한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지도자와 경영자로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이런 방식으로 경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신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섬기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 너희의 지위를 사용해야만 한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섬기는데 우리의 지위를 기꺼이 사용하는 한, 조직 계층상 지위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는 점을 예수님은 암시하셨다.

● 제이슨 송 칼럼

실패를 딛고 전진하기 (3)

오늘은 실패를 해 본 사람이 다 실패자인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과 실패를 맛보며 성장하고, 엄격히 따진다면 실패를 통해 성공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즉, 실패란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불하는 대가, 수업비, 학비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체험하는 실패를 왜 부정적으로만 볼까요? 왜 남보다 실패를 더 많이 한 사람을 실패자, 낙오자,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라 낙인 찍을까요? 그리고, 실패를 체험한 사람도 왜 그런 낙인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책망하며 “난 성공하지 못한다”란 생각을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실패가 한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 내지 임팩트의 깊이입니다.

20세기 초기 유명했던 스포츠 리포터 그랜트랜드 라이스란 분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실패란 사람의 마음에 큰 영향을 끼치지만 않는다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성공도 마찬가지로. 성공도 사람에게 마음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성공이나 실패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특히 실패의 경우 너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실패를 체험한 한 사람이 자신을 낙오자나 실패자로 인식한다면, 이런 사람은 절대 실패를 딛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패로 인해 낙심되고 위축된 사람이 있다면, “나는 낙오자가 아니다. 그저 어떤 일을 하다가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크게 외쳐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우리의 자녀, 특히 청소년에게도 해 줘야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성적이 저조하거나, 높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학생을 종종 봅니다. 이럴 때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에게 실패자란 낙인을 찍지 마라. 무엇인가를 잘하지 못했다면, 왜 잘하지 못했는가를 연구하고 파악해서 다음에 최선을 다해 성공하도록 해라.” 이게 중요합니까. 이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성적, 높은 성과를 얻게 하는 밑거름입니다. 이게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실패를 딛고 성공한 사람이 수도룩합니다. 모짜르트는 피디난트 황제로부터 “피가로의 결혼”이란 작품이 너무 시끄럽고 분주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니다. 그런데 지금 피가로의 결혼이나 모짜



제이슨 송 교장
새연약초중고등학교

르트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피디난트 황제는 아무도 모릅니다.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죽기 전까지 단 한 폭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흐가 몇 점의 그림을 그렸는지 아시나요? 900폭의 페인팅과 1100폭 이상의 스케치, 총 20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 한 장 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사후 고흐는 인상주의 화가 중 가장 뛰어난 화가로 인정받았고, 그의 작품들은 수만, 수십만, 수백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떻게 고흐가 굶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지 아세요? 형의 실력과 열정을 믿고 평생 후원해 주 동생이 피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어떤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디슨은 전축 및 카메라, 그리고 전구를 개발한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에디슨의 선생 중 한 명은 에디슨을 향해 “도무지 가르칠 수 없는 아이, 학교에 오지 말고 집에서 부모가 돌봐야 할 이상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에디슨은 꾸준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놀라운 기계와 도구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디슨의 명언은 참 우리에게 힘과 희망을 줍니다. “난 실패하지 않았다. 그저 1만 가지 안되는 방법을 찾았을 뿐이다.” “성공이란 포기하지 않았기에 얻는 수확이다.”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기회란 것이 작업복을 입고 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참 뜻깊은 말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포기하지 않았고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여겼던 토마스 에디슨의 명언엔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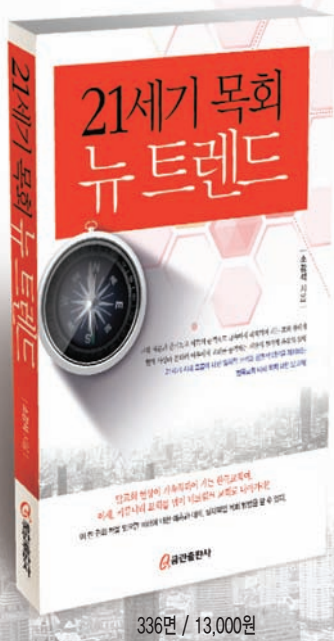
만약 토마스 에디슨이 천재였다면, 아인슈타인은 천재의 제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아이슈타인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아인슈타인이 어린 시절 독일 초등학교에 다닐 때, 그의 선생은 그에

게 “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어. 넌 결코 큰 사람이 될 수 없어”란 말을 했답니다. 정말, 이런 선생은 선생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선생이나 부모, 어른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좌절케 만드는 독을 뿜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을 들었던 아인슈타인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 시절 동급생들과 그리 차이가 없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니다만, 17살 때 폴리테크닉 학교 교장으로부터 천재성을 인정받기 시작했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은 상대성의 일반 이론(General Theory of Relativity)을 발견했고, 1921년 노벨상을 수상했고, 요즘 많은 과학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양자 이론(Quantum Theory)에 기초를 제공했기에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실패를 딛고 성공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다 실패자로 낙인 찍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과 실패를 맛보며 성장하고, 더 나아가 실패를 통해 성공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우리 절대 실패를 낙인으로 받아들이어서는 안됩니다.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336면 / 13,000원

21세기 목회 뉴트렌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회 예측과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다가오는 2017년을 '21세기 목회 뉴트렌드'와 함께 시작하세요!

— 소강석 지음 —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8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예언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8 한국기독교출판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천상병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증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거룩의 재발견
317면 / 13,000원



생명의 언어
317면 / 13,000원



안나가?
가나안!
240면 / 11,000원



피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라
256면 / 10,000원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도서

한 권으로 공부하는 신구약 이야기
김현희 | 디모데 | 430쪽

성경 통독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내용을 모르고 그저 읽어가는데 대한 지루함 또는 좌절감'일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이들을 위한 '성경 개관서'이다. 성경 각 장에 대한 상세한 주석은 아니지만 각 책의 핵심 내용과 교훈을 담았고,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평신도도 어려움 없이 성경 전반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디트리히 본회퍼 40일 묵상
디트리히 본회퍼 | 좋은씨앗 | 152쪽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디트리히 본회퍼의 시와 설교를 엮어낸 묵상집. 부제는 '행동하는 신앙인 디트리히 본회퍼와 함께 생각하는 이타적 기독교'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새기는 사순절 40일 동안 읽을 수도 있지만, 부활절 이후 승천까지 40일간 매일 한 편씩 읽으며 '고난과 소망'을 함께 묵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



도레의 판화와 함께 보는 성경
차기태 | 필맥 | 524쪽

19세기 판화작가로서 성경을 주제로 한 수많은 작품을 남긴 프랑스의 귀스타브 도레의 판화 239점을 통해 성경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그림을 풀이하면서 성경에 문외한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형태로, 방대한 성경의 주요 내용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표현이 가톨릭 식이고, 개신교 성도들이 접하기 힘든 구약 외경의 그림들도 나와 있어 관심을 끈다.



최후의 승자가 되라
신동준 | 미다스북스 | 544쪽

많은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혼란한 시대를 뛰어넘어 최후의 승자가 된 '흠수저'이자 '선택받은 리더' 유방의 '소통 리더십'을, 3대 원칙과 9가지 실행법칙으로 분석한다. 저자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자신이 뜻은 품을 펼쳐갔던 유방의 리더십에 주목하고, 이를 복합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의 자기관리와 기업 경영에서의 조직 관리에 적용하고 있다.



REVIEW

“한 영혼 살리지 못한 죄책감이 목회의 터닝 포인트”

“눈물 나도록 파사로움, 눈물 나도록 행복함, 눈물 나도록 감사함, 눈물 나도록 뜨거움! 매주가 부흥회 같고 설교 때마다 나를 울고 웃기신다.”

삼척 큰빛교회 성도들의 말이다. 김성태 목사는 16년 전 단 2명의 성도에서 1,500명으로 교회를 부흥시킨 한국교회의 차세대 목회자이다. 하지만 김 목사는 “단순히 수적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다중적인 양육 시스템을 통해 성도들의 내적 성장을 이룬 외적 결과에 더 주목해 달라”고 말한다. 신간 ‘교회의 심장이 다시 뿔다’에는 김 목사의 영혼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양육 이야기가 담겨 있다.

큰빛교회의 성장에는 빼어난 과정이 있었다. 어느 날 한 영혼이 갈급하여 교회를 찾아왔지만 바쁜 것을 이유로 돌보지 못했고, 그는 결국 안타까운 운명을 맞게 됐다.

이 사건은 김 목사의 목회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 한 영혼을 돌보지 못했던 자책이, 숫자가 목표였던 김 목사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그때부터 그는 ‘숫자는 참사다’라고 할 정도로 ‘단 한명의 영혼’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외우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밥먹을 때도 전도대상자 가게를 일부러 찾아가는 목사가 되었다.

김 목사는 성도들의 삶의 주변만 서성이는 목회자의 애증간한 모습



교회의 심장이 다시 뿔다
김성태 | 물맷돌 | 264쪽

을 벗어 버리고, 과감히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 함께 춤추고 탄식한다. 몸이 불편한 성도들의 병실을 지키며 하얀 밤을 지새고, 정이 그리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고 때로는

말씀으로 엄히 꾸짖고 때론 부둥켜안고 통곡한다.

김 목사는 “그렇게 갈아 엮어진 심령 위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삼척의 황무지는 푸르름이 가득한 옥토로 변해가고 있다”며 “이들의 이야기는 목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김 목사의 목회를 통해 성도들은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섬기고 순종한다고. 한 성도가 암에 걸려 쓰러졌을 때 그날 밤 100명의 성도가 모여 밤새 철야 기도회를 열기도 하고, 서울대 출신의 집사가 교회 청소를 한다. 여성도들은 매주 집합이 그리운 대학생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한다. 성도가 한 가족 같다.

‘양육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를 몸소 실천하는 큰빛교회는 한국교회가 가야 할 목회 방향을 제시한다. 김 목사는 “전도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양육은 정말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양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삶이 고스란히 담긴 이 책은, 본질을 잃고 있는 한국교회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목사는 협성대학교와 감리교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을 졸업하고 리버티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다니엘 스콜 필리핀 교육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김은애 기자

에트레벨
être belle
Made in Germany

! 피부 회복력 강화 시스템!
24캐럿 골드와 꿀의 환상 조합!

피부 세포 재생 솔루션

G/O/L/D/E/N/S/K/I/N

클렌징부터 마무리 크림까지 느낄 수 있는 24캐럿 골드 트리트먼트

- 1) 눈가 쿨링 효과와 풍부한 영양공급으로 뛰어난 펴밍 효과로 건강한 눈매로!
- 2) 자외선이 강한 오전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 탄력을 향상!
- 3) 밤 사이 충분한 피부 휴식과 영양을 채워주어 피부 컨디션을 회복!

■골든 스킨 케어 세트
Golden Skin Care Set

골든 스킨 아이 젤 15ml
골든 스킨 데이 크림 50ml
골든 스킨 나이트 크림 50ml

3종 세트 **\$256** + tax

나이트 크림 50ml

데이 크림 50ml

아이 젤 15ml

Biocüra

바이오큐어는 독일최대규모 코스메틱 막심과 엠에스코의 라인업 확장으로 의료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특허기술을 보유하여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바이오큐어의 제조에 기술제휴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 놀라운 효과를 한알에 담다!
■ 바이오큐어 트리트먼트 캡슐
TREATMENT CAPSULE

한알의 파워! 블랙캡슐
독일 제약회사의 기술력 바이오큐어
TREATMENT CAPSULE 50ml
\$49 + tax

미백효과
탄력개선
주름개선
항산화
안티에이징
혈색개선

! 금빛으로 빛나는 골드 캡슐!
■ 바이오큐어 콘센트레 퓨어세럼
CONCENTRATE PURE SERUM

금빛으로 빛나는 골드캡슐로
잃어버린 피부의 빛을
되찾아 드립니다.

주름 미백 기능성 화장품

주름개선 미백 생리공급 수분
CONCENTRATE PURE SERUM 35ml
\$41 + tax

■골든 스킨 아이 롤-온
Golden Skin Eye Roll-on

휴대가 간편한 젤 타입의 아이 롤-온

탄력
피부결
수분공급
눈가 생기

Golden Skin Eye Roll-on 10ml
\$34 + tax

■선 크림 + 애프터 선 로션
Sun Cream + After Sun Lotion

Sun Cream + After Sun Lotion 75ml+75ml
\$44 + tax

선크림과 애프터 선 로션 패지키 상품으로 선블록을 차단해주며
햇빛으로 인해 자극 받은 피부 진정까지 한번에 가능한 제품.

구입문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100, LA,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

하나님 존재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없다

[크리스찬북뉴스 추천도서] 무엇이 보이는가?

개신교회의 정체성은 '성경'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 종교개혁의 정당성이 바로 로마가톨릭교회가 성경에 권위를 두지 않고 교회와 교회 정치에 권위를 더 뒀으므로 성경에서 멀어진 것에 대해,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에 있었다. '오직 성경'은 개신교회의 핵심 정체성이다. 그러므로 개신교회는 '성경'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개신교회뿐 아니라 그리스도교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한다. 즉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계획과 뜻을 밝히고 계신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가끔 설교들이나 기독교 서적들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오직 성경으로만 여기게끔 하는 경우들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그리고 여러 신학자들이 있지만 개신교 대표 신학자 칼빈 또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세 가지 방편을 언급하고 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과 자연계에 속한 것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들이 일방이 많이 나타난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성경)를 통한 구원과 심판의 역사들이 특별한, 그리고 성령의 내재성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계시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성경)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라고 맹목적으로 읽는 것보다, 성경(예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는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성경이 무엇이며, 성경이 어디에서 왔으며, 성경의 내용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성경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한 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다. 계시 속에는 신비적 요소가 있지만, 계시를 신비의 전부로 보는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 이러한 사상은 그리스 철학적 사고에 더 가깝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계(물질계)를 초월계와 구별시킴으로써, 신이 인간이 살아가는 물질계와 역사계에 개입할 수 없게 됐다. 그로 인해 그들은 신적인 개입이 있는 '계시'가 아니라 '이성'을 믿게 된 것이다. 즉 성경이 인간의 참여와 역사의 상황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으로



존 파이퍼의 성경과 하나님의 영광
존 파이퍼 | 윤종석 역
두란노 | 142쪽

부터 왔다고 믿는 것은, 문지도 따지지 않은 게으르고 맹목적인 신앙의 모습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도 베뢰아인들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예수 그리스도)과 말씀을 상고하고 숙고함으로 성경을 진지한 태도로 읽고 연구할 것을 여러 곳에서 권면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역사, 문화, 국가, 환경, 나아가 개인적인 문제들 가운데 당시 인간의 언어로 주신 것이다. 성경은 모세가 최초로 기록한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 신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까지 1,500년에 걸쳐 쓰인 책이다. 뿐만 아니라 구약이 유대인들에게 정경으로 정착하기까지, 신약이 여러 위서들을 분류해 내고 사도의 글들을 확정하기까지 성령의 인도 가운데 역사적이며, 인간들의 참여 가운데 진행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대해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때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본서를 읽으면서 좀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던 것은 저자가 시시때때로 사용하는 '영광'이라는 단어였다. 물론 문맥을 통해 그 의미를 추론할 수 있었지만, 영광이라는 단어가 불규칙적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사용돼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책의 끝 부분에 이르러서야 저자가 '영광'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 본성의 나타남, 드러남' 등으로 파악되었다.

근거 없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필자가 보기에, 저자는 '근거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다'

는 것 때문에 이 책을 썼다고 느꼈다. 저자는 본서의 중간 부분에서 파스칼이 광세에서 언급한 '신이 없다고 믿는 것과 신이 있다고 믿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하고 이익이 되겠는가?'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강한 비판을 표한다. 그 이유는 파스칼이 언급한 방식처럼 그냥 자신이 나중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믿음으로서, 단순히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해서 참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는다.

맹목적으로 자신이 죽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정한다 해서, 그 사람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인식이 있어야 그의 신앙생활이 참되고 바른 신앙생활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르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보이는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한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보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 같은 성경을 읽지만, 그 본문을 통해 보고 깨닫는 것은 읽는 사람의 성경 이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성경을 해석하고 깨닫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넘어 성령의 내적 조명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성령의 내적 조명 또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저자가 밝히듯 성경 내용을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성경에 관한 지식도 성경을 바르고 더 깊이 읽기 위해 필수적이다.

필자는 본서를 큰 기대감 없이 펼쳤다. 그러나 읽어가면서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해 알고 있지만 성경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권하고 싶어졌다. 본서와 같은 책으로 새신자 교육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도들의 신앙 성장 속도와 성숙도,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강도현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운영자

칭기즈칸의 삶과 세계 정복사를 재구성하다

송광택 목사의 인문 고전 읽기



칭기즈칸
헤럴드 램 | 현실과미래사
276쪽

평생 동안 칭기즈칸에게는 수많은 별명이 따라다녔다. "살인마, 신의 재앙, 대전사(大戰士), 왕 중의 왕...; 대부분의 지배자들과는 달리, 그러한 별명이 칭기즈칸에게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10쪽)". 어떤 이는 몽골인들을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교회마다 몽골인들의 공격에서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12쪽)".

저자의 말대로 우리가 칭기즈칸을 공정하게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그의 업적에 관한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그의 적이었기 때문이다(230쪽). 그러나 몽골의 지배로 문화의 꽃이 새롭게 핀 곳도 많이 있었다. 이것은 '팍스 로마나(Pax Romana, 로마의 지배에 의한 평화)'와 유사한 것이었다. 또 몽골 지배하의 일정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순례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유럽의 성직자들도 처음으로 극동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칭기즈칸이 만든 법전 '야사'의 첫 번째 조항에는 놀랄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모든 사람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부와 가난을 주관하시고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유일신 하나님을 숭배해야 한다(238쪽)." 이 내용은 기독교의 한 분파(한때 이단으로 간주)인 네스토리우스파의 가르침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준다(82쪽)"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물론 이 조항은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칭기즈칸

은 백성들을 분열시키거나 그들에게 잠재해 있던 종교적 분쟁의 불씨들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프랑스 왕의 평화 사절로 몽골을 방문한 프라 루브루키에게 "우리 몽골인들은 신이 한 분이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와 직접 통하는 꿈은 마음을 갖고 있고"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274쪽). 비록 다른 종교에 대해 관대하였으나, 그는 사며니즘 신자였다.

칭기즈칸의 통치 말기, 칸(Kahn)에 대한 충성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군주에 대한 배신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말과 행동으로 군주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표현하였다. 또 그들은 서로에 대한 예절을 지키며, 먹을거리가 부족할 때에는 서로 아낌없이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서로 돕고, 다른 민족은 압살한다"는 것이 야사의 기본 정신이었다. 칭기즈칸은 부족 간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 그들을 다른 부족과의 싸움에 몰두시켰다(84쪽). 그는 자신의 통솔 능력을 확신했으며, 따르는 자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움직이는 말솜씨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를 위해 헌신한 군대는 여섯골 유목민 부대가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잘 훈련된 중무장 기병대(86쪽)'였다.

저자 헤럴드 램에 따르면, '파괴자 칭기즈칸'이 부순 장벽은 암흑시대라 불리는 중세가 세워 놓았던 것이었다. 칭기즈칸이 닦아 놓은 도로 덕분에, 유럽인들은 중국 예술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유럽인들은 커다란 의식 변화를 겪어야 했다.

저자 헤럴드 램은 미국 콜럼비아대 출신의 역사 저술가이다. 특히 중국어와 아라비아어에 통달한 그는 이 책 '칭기즈칸'에서, 자신이 수집한 귀중한 사료와 뛰어난 상상력으로 몽골 영웅의 삶과 세계 정복사를 재구성하고 있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모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 해외이사
- 화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Passing on the 'Preciousness of Christ'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BY RACHAEL LEE

Pastor Daavid Yoon's passion for the Korean immigrant church is not just about an attachment to the Korean culture – it's a passion to see the faith being passed down through the generations.

"I'm just an 'apostle to the Jews.' I'm not going to be the savvy church planting missionary guy," he said. Yoon came to Southern California to lead the English ministry (EM) at Inland Church last August after a 10-year stint as the EM pastor at New York Presbyterian Church.

"The kingdom work is expansive enough that you don't have to do everything. There's enough work to be done in each specific area. For me, the multi-generational component is what clicked. I strongly believe in passing on the faith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Yoon himself is a product of a generational passing on of the gospel: he came to faith through the model of his parents. As both his father and mother were the first Christians of their respective families, he said he understood how precious the gospel is from the way his parents lived out their faith. Some might have argued that the high, rigid standards set by his parents were too "legalistic." But Yoon says he personally didn't find fault with the rigidity

because of the way they exemplified how much they cherished the gospel in their own lives as they persevered through the persecution they faced amongst their relatives.

"Sure, there might've been a rigidity to the way they passed on the faith in terms of the standards they have. But it was because the persecution they experienced from their families allowed them to cherish their faith to the point of saying to us, 'You need to know this too. I'm not just getting yelled at because it's fun, but I really want you to know the value of this.' Regardless of whether it's legalistic or not at that moment, I don't think anyone can deny the preciousness of Christ in their life. It's the preciousness of Christ that needs to be passed on, and we need to be able to properly balance that – the rigidity, and the gospel grace."

It's been Yoon's hope throughout his years in ministry to see this modeling of faith within the church, from parents to children, and from older brothers and sisters of the faith to the younger. He believes it's a biblical way to carry out ministry.

For instance, in the Apostle Paul's letter to the Ephesians, Yoon noted, he addresses the children as well in chapter six, which signifies that children were just as much present in the gathering of

believers as the adults were.

Yoon also believes having the entire family worship together – what he calls the covenantal worship model – also fosters spiritual conversations amongst parents and their children.

He recalled a moment during one of his Sunday sermons at NYPC, when he was preaching on the sovereignty of God. He said that very phrase emphatically during his sermon – "the sovereignty of God" – and then gave a short pause, during which a four-year-old in the congregation said out loud, "Mommy, what does sovereignty mean?"

"You're able to see a fuller dimension of what faith could look like."

- Yoon, referring to the Korean immigrant church

"That's what this is about," Yoon said. "It's the interactions that result from worshipping together. At the drive home, when the kids ask parents about what the sermon was about, for example. It keeps them inquisitive and informed," Yoon said.

Having all ages worship together also cultivates a sense of ownership amongst the older genera-



Daavid Yoon currently serves as the English ministry (EM) lead pastor at Inland Church, located in Pomona, CA.

tion to do their part to pass on the spiritual legacy to the younger members, according to Yoon. He cited the famous adage,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to note that the spiritual influences on young people range beyond that of their immediate family. It takes the small group leaders, retreat organizers, and mentors in the church to raise up a child in the faith, too.

Yoon's ideal conception of small groups for children and youth would be to have leaders in their thirties and forties, rather than those in college, he said. It allows children and teens to be aware that church will still be "relevant" when they grow older – that even after they graduate from college, there is a place for them to serve.

For the Korean immigrant church in particular, being exposed to both Korean speak-

ing and English speaking older brothers and sisters in the faith also grants a "fuller dimension of what the faith could look like," said Yoon.

Though, as a relative newcomer to Inland's EM, Yoon is refraining from making drastic changes to the church for now, he says that he and the leaders are working on cultivating a family mindset and a sense of commitment amongst the church members. Having that covenantal mindset and commitment to the local church is where that passing on of the faith begins.

"The church is a covenantal community and it is a household of God," Yoon said. "Inasmuch as you don't get to pick your siblings, you don't get to pick your church members. You're dealt with these cards, and that's an opportunity for you to practice the gospel."

How Can Christian Leaders Counter False Teaching? From Platforms, and Through Relationships

The year 2017 is another year with an increased level of access to information from across the globe, and Christians encounter countless facts and opinions on a daily basis. This allows the current generation of Christians to not only be the most informed, but also to possibly be struggling with a greater level of confusion on what to believe.

At a Korean Global Mission Summit on Wednesday, Jeff Iorg, the president of Gateway Seminary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noted these trends and called on Christian leaders to continue to firmly and vigorously defend the Scriptures through the various avenues available to them.

In particular, Iorg focused on countering the ideas perpetrated by "false teachers," which he defined as those who take the Bible and use it to justify their beliefs which are contrary to the Christian faith. One example of false teaching which Iorg cited was that of accepting and using the Bible to justify same-sex marriage.

"We are surrounded by detractors who ignore or ridicule the Bible," Iorg said. "While they seem intimidating, the greater problem ... is so-called Christian leaders who claim to take the Bible seriously, while recasting its meaning to suit their selfish purposes. The example of this issue today is those who use the Bible to change definitions of gender, morality, sexuality, and marriage."

He suggested two main avenues through which Christian leaders can counter false teachings. One avenue is through communication platforms, such as preaching, teaching, or writing. This would be most accessible by pastors and professors, for example.

"When a false teacher takes a public stand, open rebuke is biblically appropriate," Iorg said. "Those of us who have public leadership responsibilities know



Jeff Iorg, president of Gateway Seminary, speaking at a missions conference in February 2013. (Photo: Shane Tanigawa/CC)

public analysis, evaluation, and critique comes with the territory. False teachers may be confronted through the same media they use to promulgate error."

But Iorg also encouraged Christian leaders – including pastors and professors, as well as those who may not have such a public voice – to confront false ideas through day to day relationships with family and friends, which he called "personal apologetics," and noted that this is "the process of correcting false teaching (the results of false teachers) more than the teachers themselves."

One poignant example he gave was that of parenting. As children are inundated with various opinions and information through the media, their ideas may be shaped by voices that are beyond the reach of parents, no matter how much they may try to shelter their children. Even at school, children may be exposed to ideas promoted by their teachers which may be contrary to the Bible. Iorg encouraged parents to be proactive in discussing these ideas, and said he himself "took them [the outside influences] on aggressively."

The important point is to have an "honest dialogue," he added, and said it's important for parents to also allow their children the freedom to make the wrong

choices, while also letting them know of the "Bible's standards and expectations," as well as the consequences that may ensue from their choices.

Whether with children or with friends, Iorg emphasized that personal apologetics must be focused on countering the false ideas, rather than attacking the individual.

"Their thoughts are the result of false teachers or errant teaching, not the cause. Keeping this distinction in view will increase your patience, lessen your anger, and generate conversations rather than lectures," Iorg noted.

"Your objective isn't to beat people up with information. Your task is telling the truth, as lovingly and patiently as possible, confronting false teaching rather than attacking the person who has been duped by it," he added.

Iorg also reminded leaders of the importance of persevering in personal and public apologetics, saying that false teaching leads to "destruction."

"Lives are ruined when the Word of God is flaunted. Those of us who teach the Bible's plain meaning are often marginalized as uncaring and intolerant. The opposite is actually true," he said.

"We love people so much we are willing to be ridiculed for telling them the truth. We can't stand idly by while people are propelled toward catastrophe by sweet-sounding error. When false teachers win the day – whether culturally-elite, media personalities or well-educated, erudite preachers – people are eventually destroyed by following their lead. No truly caring person can tolerate such dastardly abuse. We are compelled to speak up."

Meanwhile, the Korean Global Mission Summit took place from February 20 to 22 at Gateway Seminary in Ontario, CA and Beautiful Church in Rowland Heights, CA.



Connie Chung Joe (left) and Sylvia Kwon (right) spoke at a press conference on Tuesday about the new fundraising project to expand KFAM's pro bono counseling program. (Photo: KFAM)

KFAM Seeks to Expand Funding for Pro Bono Counseling Program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a non-profit which provides counseling and other services for those in the Korean community, will be expanding the ways through which it funds its pro bono counseling program, the group announced on Tuesday.

The program, called the ROCK Project (Resilience to Overcome Challenges for Korean families), began in 2015 with a donation of \$50,000 given by an anonymous giver who asked that the money be used to offer free counseling to those who are undocumented, those with low-income, or those with no insurance, who may hesitate from seeking counseling.

Another anonymous donation of \$50,000 was given in 2016, allowing for the continuation of the project.

This year, KFAM seeks to broaden its sources of funding for this project to be able to serve even more people, and will be launching fundraising projects to do so.

"Through the two generous donations in the last two years, KFAM saw the need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e group stated. "Therefore, KFAM has launched the ROCK Counseling Project. This project will raise funds to help provide more pro bono counseling sessions for clients with quality mental health

care in a supportive and culturally responsive environment."

The first fundraising project will be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LA Marathon, hosted by Sylvia Kwon, the counseling project director.

The names of those who sponsor Kwon's marathon run will be displayed on her running bid.

"Running the marathon and counseling share a commonality in that when you run together, you're strengthened by each other," said Kwon. "This is the 66th marathon that I will be participating in, and I will run keeping in mind those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who are currently enduring difficult situations."

The non-profit stated that while 18 individuals were able to receive pro bono counseling in 2014, that number increased fourfold in 2015 to 77 individuals with the ROCK Project.

"KFAM provides as much affordable or pro bono services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s possible through federal and state funding, individual donations, and fundraising projects," said KFAM's executive director Connie Chung Joe. "Our hope is that those who are going through parental issues, marital conflicts, depression, anxiety, and other issues will not hesitate to seek counseling because of the cost."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4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How Do Pastors in the U.S. Perceive Domestic Violence? How Prepared Are Churches to Help Victims?

Domestic violence is an issue that requires a multi-faceted approach, and the church community can play a vital role in providing support and resources to victims. A study released on Monday explored how pastors perceive the issue, and what kinds of resources are available in their churches to provide help.

According to the LifeWay Research study, a substantial majority of pastors believe that their churches are a safe haven for people experiencing domestic violence. When asked how much they agree with the statement, “A person experiencing domestic violence would find our church to be a safe haven,” 87 percent said they strongly agree, and 11 percent said they somewhat agree.

A majority of pastors also said they speak out against domestic violence and “specific behaviors” related to it, as 56 percent strongly agreed that they do, and 32 percent said they somewhat agree.

Fewer pastors said they have a plan ready if someone approaches them asking for help in a domestic violence situation. A little over half (52 percent) said their churches have a

response plan, while 45 percent said they do not.

However, most pastors said their churches have a referral list with a professional counselor trained in domestic violence (76 percent). Other resources that pastors said their churches offer include finances (64 percent), a safe place to stay (61 percent), a referral list for legal help (53 percent), and a member of the church who has also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who a victim could talk to (49 percent).

When asked, “Has an adult in your church experienced domestic or sexual violence in the last 3 years?” almost half (47 percent) responded, “Not that I know of,” while 37 percent said yes.

Scott McConnell, the executive director of LifeWay Research, said that though the percentage of those who said they know of someone in their congregations who has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is low, the actual number of victims is likely higher.

“Statistics on sinful activities consistently show that church attendees act better but are not without sin,” McConnell said. “It is naive to assume a church could remain immune to do-

mestic violence.”

Pastors of churches with larger congregations were more likely to say that they know of someone who has experienced domestic or sexual violence in the last three years. Sixty-five percent of pastors of churches with 250 or more attendees; 43 percent of pastors of churches with 100 to 249 attendees; 31 percent of pastors of churches with 50 to 99 attendees; and 20 percent of pastors of churches with 49 or less attendees said so.

Pastors with 250 or more congregants were also most likely to say that their churches have a “specific plan or procedures in place for how to respond if someone shares that they are experiencing domestic violence,” with 73 percent of them responding that they do.

Along denominational lines, Pentecostal (66 percent) and Methodist (63 percent) pastors were more likely to say their churches have specific plans in place, followed by Baptist (52 percent), Presbyterian/Reformed (45 percent), Holiness (45 percent), Lutheran (44 percent), and Church of Christ (41 percent) pastors.

Washington Supreme Court Rules Against Florist Who Refused to Provide Service for Same-Sex Wedding

Washington state’s highest court unanimously ruled on February 16 against a florist who refused to provide floral arrangements for a same-sex couple’s wedding, deciding that her refusal was a discriminatory act.

The case involved 72-year-old Baronelle Stutzman, who denied services for the wedding of same-sex couple Robert Ingersoll and Curt Freed in 2012. Stutzman had served the couple previously, but said she could not provide services for the wedding out of concern that doing so would cause her to participate in the ceremony which is against her religious conscience.

A county court judge ruled in 2015 that Stutzman’s actions constituted a violation of Washington state’s laws on anti-discrimination, and Stutzman was fined \$1,000 and \$1 in court and legal fees.

Washington’s Supreme Court stated that the act of arranging flowers does not necessarily convey an endorsement.

“As Stutzman acknowledged at deposition, providing flowers for a wedding between Muslims would not necessarily constitute an endorsement of Islam, nor would providing flowers for an atheist couple endorse atheism,” stated the opinion.

The state Supreme Court also said that Stutzman’s work in arranging flowers is not a form of speech that is protected, and separated the artistic expression from the operation of a business. The court pointed to another



The Washington state Supreme Court ruled that a refusal to provide floral arrangements for a same-sex wedding was a violation of the state’s anti-discrimination code. (Photo: Harvey Barrison/CC)

case that involved a photographer who declined a request for a same-sex wedding.

“While photography may be expressive, the operation of a photography business is not,” stated the court.

Stutzman and her attorneys from Alliance Defending Freedom have expressed they will appeal to the Supreme Court.

“This case is about crushing dissent. In a free America, people with differing beliefs must have room to coexist,” ADF’s senior counsel Kristen Waggoner said in a statement. “It’s wrong for the state to force any citizen to support a particular view about marriage or anything else against their will. Freedom of speech and religion aren’t subject to the whim of a majority; they are constitutional guarantees.”

“Rob Ingersoll and I have been friends since very nearly the first time he walked into my shop all those years ago,” stated Stutzman, who is reported to have served Ingersoll for almost 10 years. “There was never an issue with his being gay, just as there hasn’t been with any of my other customers or employees ... But now the state is trying to use this case to force me to create artistic expression that violates my deepest beliefs and take away my life’s work and savings, which will also harm those who I employ.”

“I’m not asking for anything that our Constitution hasn’t promised me and every other American: the right to create freely, and to live out my faith without fear of government punishment or interference,” Stutzman added.

Trump Administration Issues Memos to Begin Implementation of Immigration Executive Orders

The Trump administration issued memos on Monday that detail some ways that it will implement the executive orders the President signed earlier this year to increase deportations and restrict the flow of undocumented immigrants from entering the country.

The memos, which were issued by John Kelly, the 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seek to prioritize undocumented individuals who have committed a crime; hire 5,000 more Border Patrol agents and 10,000 mor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officials; begin constructing the wall along the southern border of the country; detain undocumented immigrants until their hearing is concluded; and speed up the deportation process, among others.

Those who have been “convicted of any criminal offense”; “have been charged with any criminal offense that has not been resolved”; “have committed acts which constitute a chargeable criminal offense”; “have engaged in fraud or willful misrepresentation in connection with any official matter before a governmental agency”; or “have abused any program related to receipt of public benefits,” among other criteria, will be prioritized for deportation, according to one of the two memos issued



Homeland Security Secretary John F. Kelly (left), Vice President Mike Pence (center), and President Donald Trump (right) during the President’s visit to the DHS in January 2017. (Photo: Public domain)

on Monday.

The memos also seek greater cooperation between federal and local enforcement officials to identify and deport undocumented individuals.

However, Gillian Christensen, a spokeswoman for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aid on Tuesday that those protected under President Obama’s 2012 executive order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will remain protected as long as they follow the requirements of the newly issued guidelines and do not commit crimes.

The memos were met with outcry from immigration activists.

“These memos lay out a detailed blueprint for the mass deportation of 11 million undocumented immi-

grants in America,” Lynn Tramonte, deputy director of America’s Voice Educational Fund, said. “They fulfill the wish lists of the white nationalist and anti-immigrant movements and bring to life the worst of Donald Trump’s campaign rhetoric.”

Meanwhile, Trump and his administration have said the guidelines were not meant to be for a “mass deportation.”

“We do not have the personnel, time or resources to go into communities and round up people and do all kinds of mass throwing folks on buses. That’s entirely a figment of folks’ imagination,” the Washington Post quoted an anonymous official as saying. “This is not intended to produce mass roundups, mass deportations.”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1:30 PM
Children's Ministry: 11 AM
Friday Worship: 7:30 PM
Dawn Prayers: 5:30 AM Tu-F; 6:30 AM Sat.

PASTOR WON LEE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la.org

활성산소 제거? 해답은 수소수!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병들의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독성산소, Free Radicals)이며, 수소는 그런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물로 변환되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소의 역할

- 대표적 활성산소인 하이드록시 라디칼과 결합해서 몸에서 배출
- 체내의 염증을 제거하여 통증을 완화
- 미세분자상태로 체내의 모든 부분, 심지어 뇌까지 도달되어 활성산소를 제거

본 수소수기의 특징

- 1) 2중 역삼투압 방식에 의한 순수한 원수를 바탕으로 고농도(800~1,000ppb)의 수소수를 생성하며, 물의 성질은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약알카리 상태가 됩니다.
- 2) 대용량 필터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을 생산한 별도의 전해조에서 생산된 수소가스를 우리가 음용하는 물에 가압하는 침탄방식으로 즉시 물을 드실 수 있고 오랜기간을 사용해도 수소가스의 농도가 유지됩니다.



시금치 90다발 바나나 1512개 사과 1032개 당근 76개 큰호박 7개



일본의 시타마대학교의 하타나 가즈미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수소농도 1,000ppb의 경우에 베타카로틴 함량 기준으로, 위와 같은 양의 항산화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항산화 물질은 들어갈 수 없는 뇌 속이나 깊은 장기의 미세조직까지도 수소는 도달될 수 있으며 도달된 수소는 활성산소들을 물로 변환시키므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프랑스 “루르드 샘물”
독 일 “노르데나우 샘물”
멕시코 “트라코테 샘물”

세계 3대 샘물의 비밀

기적의 수소수를
가정에서 드세요!

수소수 무료 제공!
깨끗하고 건강한 물 트러쉬 오세요,
한국의 **에네스티 PLUS**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입니다.

CTP 100
\$1,390 +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정수기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GSPH 100
\$2,990 +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정수기



수소 보틀(1병) 구입시
에네스티 핸드크림 2개 Free
(12월 상당 시은품)

공짜

■ 환원력이 뛰어난 수소가 생성되는 보틀

[제품특징]

*스테인레스 필터를 통해 입차, 티백, 천연차 등 다양한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적정사용온도 : 친환경소재와 제품 변형 방지를 위해 -20도~100도 사이에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심플한 디자인, 친환경 트라이탄 소재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휴대성으로 여행, 스포츠, 레저 등은 물론 일상에서도 편리합니다.

1병 ~~\$95.00~~ \$65.00 +TAX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 (1병 Free)
\$267 +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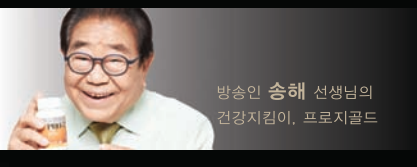
*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프로지 골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장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BAJA CALIFORNIA NATURAL SEA SALT



바하 캘리포니아 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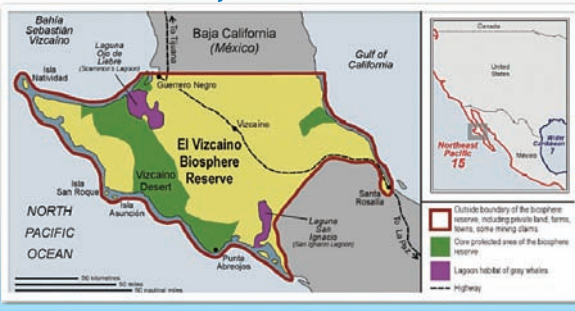
바하 캘리포니아 소금의 특징

- 최적의 생산조건에서 생성된 순도 99.70%의 미네랄소금
- 중금속 0.001% 청정 천일염
- 간수 제거된 건강 천일염
- 다년간 생산과정을 거친 최상급 천일염
- KA-Kosher 인증 천일염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염전의 특징

- 청정해역에 위치한 깨끗한 구역
- 적은 강수량 (50mm/년)
- 강한 일조량 (2M/년)
- 년 평균 기온 (18~22°C)
- 강한 바람

www.bajacaliforniasaltsalt.com



UNESCO's El Vizcaino Biosphere Reserve

성분분석 및 인증서
바하캘리포니아 천일염은 기존의
호수 수입 천일염 및 국내 천일염과
비교하여 천일염의 기능과 소비자의
선호도 또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 1봉지

건강한 피부의 시작
에네스티 화장품

enesti



이제 물에서도 당당하게!

Enesti UV/CUT SUN/BLOCK
에네스티 유브이 컷 썬블럭
워터 프루프/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
SPF 50+ PA+++ (40ml)
\$8.00 + tax

축축! 시어버터 핸드크림



PROTECTION FROM UVA, UVB WATERPROOF ANTI-SHINE EMULSION
Enesti 샤르르~ 시어버터 축축 매끈 핸드크림
초고보습 시어버터 함유 Softening and moisturizing
Net. wt. 50g \$6.00 + tax

문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100, LA,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